

▲ 2026년 10월 24일 오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멜버른 시내 중심부의 알렉산드라 가든(Alexandra Gardens)에서 영어로 된 거대한 "FALUN DAFA IS GOOD"(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문자 배열을 만들었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96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818만 2836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9期(2026.11.04) WWW.MINGHUI.ORG 한글판 1083호 minghui.or.kr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양절에 개막했다.

주 요 내 용

【중국법회】 법 얻은 지 1년, 정진실수하며 끝없는 감사를 드리다
【중국법회】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중국법회】 고난 속에서 귀착점을 찾아 법공부를 견지하며 진상을 알리다
【해외법회】 어떤 고난이든 모두 위로 제고하는 계단이다

〈목차〉

제23회 중국법회

법 얻은 지 1년, 정진실수하며 끝없는 감사를 드리다 …… 3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 17
고난 속에서 귀착점을 찾아 법공부를 견지하며 진상을 알리다 …… 26
기술 업무를 하며 심성을 높이고 서약을 실천하다 …… 32
득법할 때부터 대면해 진상을 알리다 …… 43
경찰이 집에 올 때마다 반드시 진상을 듣게 하다 …… 51
죽음을 두려워하던 데서 행운스럽게 대법제자가 되기까지 …… 59

해외법회

매체 영업 직원으로 일하며 얻은 수련 심득 …… 73
어떤 고난이든 모두 위로 제고하는 계단이다 …… 80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불과할 것이고, 끝에 가서는 여전히 원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련의 요구는 엄격합니다.

감사함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원망심을 푸는 해독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심은 수련인의 정념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참는 것은 쉽고 용서하는 것은 어려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2007년 사부님께서 호주 수련생들에게 하신 설법의 가르침을 줄곧 생각하며, 제가 정말로 수련 중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을 좋은 일로 여길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점을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비를 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무척 어렵습니다. 문제를 보는 마음가짐, 즉 정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련은 본래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번 겪는 시련이 모두 하나의 계단이며, 어려움이 클수록 제고도 크다는 것을 항상 자신에게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이상은 저의 제한적인 인식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호주 법회 원고)

랐고,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하나 찾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뻤습니다. 이 역시 잊기 힘든 시련이었으며, 무조건 안으로 찾고 제고할 모든 기회를 꽉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의 심성 시험을 완전히 통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은 퍼스로 돌아가 한 수련생 친구와 교류할 때에야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캔버라에서 정부 업무를 조율할 때 겪은 각종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말한 그 심성 시험은 이미 통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계속 제게 조언하며 어떻게 해야 이 고비들을 넘을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비들을 나는 이미 넘었는데 그는 왜 아직도 내가 넘도록 도와주고 있지?' 이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정말 고비를 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친구는 이어서 자신이 최근에 겪은 몇 가지 시련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중 한 고비가 마치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어려워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내려놓기가 매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저를 일깨워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고비는 참고 견뎌 넘길 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당시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침내 험준한 산길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위험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고비를 넘겼는지 판단하는 징표 중 하나가 바로 이 경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제 이해로는 이 감사함은 부분적으로 제가 이 시련에서 얻은 유익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으로 체득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제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수련에서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득 한 가지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심성 시험을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매 시험마다 90%만 통과했다면 결국 제 수련도 90%

중국법회

법 얻은 지 1년, 정진실수하며 끝없는 감사를 드리다

글/ 중국 쓰촨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을 얻은 지 막 1년이 된 신수련생입니다. 대법 수련에 들어선 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면의 감동과 충격은 매우 강렬합니다. 저는 이 말겁 시기에 사부님의 제도를 받아 사부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서 너무나 행운이며, 마음속의 감사와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을 맞아 지난 1년간 법을 얻고 수련한 경험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1. 법을 얻기 전의 경험

좌절

어릴 적 저는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자주 설사하고 토했으며 다른 병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병을 고치기 위해 저를 데리고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고 향을 피웠으며,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그리고 종이를 태우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12살 때 저는 또 큰 교통사고를 당해 부딪혀 기절했고 생명의 징후가 없는 듯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병원에서는 제가 이미 구급 처치할 필요가 없고 가망이 없다며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언니는 병원 정문에 무릎을 꿇고 몹시 울며 애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야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병원에서 4시간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

숨을 건졌습니다! 온 가족이 마치 신의 가호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999년, 21살 때 저는 한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2009년, 31살이 된 저는 그 회사를 떠나 직접 창업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체가 외지에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2013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저는 매우 고통스러워 매일 눈물로 지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자살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속세의 인연을 끊고자 출가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게는 아버지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있었고 가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아직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달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제 결혼 생활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남편의 공사 항목에 또 문제가 생겨 집에 갑자기 수백만 위안의 빚을 지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고난을 넘기기 위해 저는 외지의 사업을 접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며, 그와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고 동시에 결혼 위기를 해소해 이 가정을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제 성격 탓에 가정에서 그와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됐고, 결국 우리는 2019년에 이 결혼 생활을 끝냈으며 그해 제 나이는 41살이었습니다.

법을 찾다

사실 2013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불문에서 답을 찾아 고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 생활을 직시해야 했고 출가는 불가능했습니다. 2013년 11월에 이르러 우연히 선종의 한 '사부'를 만났고, 저는 귀의해 그를 따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가 현지 불교협회의 어떤 직책을 다투

랐습니다.

저는 그 수련생에게 그의 일부 비판은 그저 상황에 대한 오해일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수련생이 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부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모순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우선 마땅히 냉정해야 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선의(善意)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정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모두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집착하면 역시 안 된다."(전법륜)

다행히도 제가 앞당겨 자리를 떠나야 했기에 그 수련생이 저를 비판하는 시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길에 제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느꼈고, 온통 그의 비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그가 어떻게 저를 억울하게 했는지에 생각이 집중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감정적인 충격을 뛰어넘어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이러한 비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문했습니다. '나는 비판받으면 안 되는가? 아니다. 나는 겸허하게 어떤 비판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다.' 내면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기 싫어하는 마음과 체면을 구긴 후 자신의 이른바 명성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정념이 사람의 관념을 이길 때까지 정말로 마음속의 갈등과 싸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팔짱을 낀 것에 대해 비록 불경스러운 의도가 없었지만, 자신이 보도원이 된 후 잠재의식 속에서 더 오만해지지 않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저의 겸손함을 수련하라는 일깨움으로 여겼습니다.

'허물을 들으면 기뻐한다(聞過則喜)'는 사자성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전심전력으로 지지할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자신의 집착이 중생구도를 방해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비록 소수의 수련생만이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성과를 얻었든 그것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수련생 전체의 수련이자 사심 없이 서로 지지한 결과였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원래 강한 관념을 가졌던 수련생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고, 수련생들이 무조건 협력하는 것을 보았으며, 호주 수련생들이 정체를 형성한 것도 보았습니다.

2. 수련 중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좋은 일

저는 잠시 캔버라 보도소의 보도원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보도원으로서 수련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모두와 함께 노력해 정체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생들을 방문해 그들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한 수련생은 중국 본토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캔버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돌아서서 저를 가리키며 바꾸려면 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에 대한 불만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적지 않은 비난이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팔짱을 낀다고 질책하며 사부님처럼 팔을 둥글게 모으는 자세로 바꾸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각자(覺者)의 상징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즉시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몹시 억울했고 저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그가 저를 비판하는 동시에 저는 그의 비판을 중국어를 모르는 수련생에게 통역해 줘야 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영문을 몰

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출가자가 어떻게 이렇게 돈과 명예를 추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세상이 아주 혼탁하다고 느꼈고 내심 진정한 수련의 정토가 있기를 늘 갈구했습니다.

2019년, 감정적인 절망과 인생의 좌절을 겪은 후 저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사를 초월하고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2. 법을 얻다

제가 갈등과 곤혹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 7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 하오(郝) 언니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 소식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와 우리는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불문에 귀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게 진심으로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본 하오 언니는 2024년 7월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수행에 관한 보서인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보라며 아마 제 수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찍이 제 나이 28살이었던 2006년에 홍콩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파룬궁 자료를 봤지만, 제 자신이 악당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 있었기에 자료를 받기는 했으나 감히 보지 못했고 더더욱 가져오지 못해 대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법과 스쳐 지나가며 한 차례 법을 얻을 인연을 놓쳤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룬궁 책이라는 것을 보고 약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오 언니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이왕 몸에 좋고 수행하는 것이니,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을 좀 봤습니다. 당시 아이가 1년 뒤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속으로 '아이가 대학 입시를 마친 후에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저는 또 한 차례 법을 얻을 인연을 놓쳤습니다.

2025년 6월, 아이의 대학 입시가 끝난 후 하오 언니는 다시 한번 보

서인 '전법륜'을 제게 보내주며 꼭 연달아 세 번을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한 번 보니 책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고, 저는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보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책을 볼 때 책 속의 글자가 빛나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보라색 빛을 발하기도 했으며 글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다고 느꼈고, 이 글자는 살아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오 언니가 이 책이 보서라고 하더니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신기한 현상을 기쁘게 하오 언니에게 알렸습니다. 수련생인 하오 언니는 "이렇게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다니, 당신과 대법은 정말 인연이 깊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법 수련에 들어섰고 대법 속에서 착실히 수련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고 보면서 불광 속에 목욕하듯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평온함과 상서로움을 내심 느꼈습니다.

3. 대법이 기적을 나타내다

대법 수련에 들어선 1년 동안 수련 과정에서 꽤 많은 기적이 일어나 대법의 훌륭함과 신기함을 더욱 믿게 됐고 수련에 대한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꿈속에서의 일깨움

2025년 말, 법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9개의 하얀 태양이 나타났지만 뜨거움을 느낄 수 없었고, 땅 위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부님과 아주 가깝게 느껴졌고, 저와 수련생 언니들은 마치 이런 장면이 있을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평온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시는 법공부가 깊지 않아 더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저는 아마 사부님께서 꿈을 통해 제게 중생이 겪게 될 큰 재난을 보여주시고는 제가 잘 정진해 중생을 구하게 하신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조율 회의에서 각종 의견과 견해를 조율하고 일치시켜 합의에 도달하고 정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비록 몇 차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해 심성을 시험했지만, 정념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사부님의 도움 아래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뤄졌습니다.

시험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직장의 일이 훨씬 바빠졌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료 몇 명이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팀은 일손이 부족해졌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근하며 공부하고 기술을 향상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캔버라로 갈 날짜가 다가오면서 준비 작업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협조인과 협력하고 우리 대표단에 합류할 법학 교수에게 연락하며, 면담 브리핑과 의제를 초안하고 조찬 간담회의 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하는 등 수많은 기타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미 부담을 이기기 힘들다고 느꼈고, 더 많은 것을 맡아야 할지 마음속으로 조금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중 어떤 임무는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획 회의에서 마음속으로 수중에 있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책임질지 배분할 때 순식간에 안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제가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임무를 자발적으로 맡았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다른 사람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우려를 내려놓자 많은 임무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찬 행사의 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할 때, 저와 다른 한 수련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내용을 조금 간소화하자고 주장했고, 그 수련생은 일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압박감이 컸고 마지막 주가 돼서야 서둘러 만들고 있었으며, 다른 준비 작업 외에 프레젠테이션까지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제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기술은 바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나서야 사부님께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안배를 해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겪은 모든 시련은 마치 다음 단계의 제고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계단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몇 년간 겪은 잊기 힘든 몇 가지 수련의 시련과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1. 정부에 진상 알리는 과정에서 무조건 협력하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은 줄곧 연마의 과정이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자신의 수련을 할 것인지에 더 중점을 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캔버라에 갔던 대부분의 일정은 준비 작업이 항상 서둘러 진행됐습니다. 올해 첫 일정은 아주 일찍 계획을 세웠고 면담 요청과 행사 초대장도 더 일찍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면 더 많은 사람이 참석 답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났는데도 국회 행사와 면담에 대한 답변이 아주 늦게 왔습니다. 핵심 팀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다른 항목으로 바빴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무겁게 느껴졌고, 아직 정체(整體,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초조함을 느꼈고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까 걱정돼 다른 협조인과 이 일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국면을 전환하려면 안으로 찾고 자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반성했습니다.

고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관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했는데, 즉 정념으로 일을 대해야 했습니다. 수련 중의 어려움은 사실 좋은 일이므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야 할 고비로 여겨야 합니다. 또 한동안 발정념에 해이해졌음을 깨닫고 즉시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법의 위력을 체험하다

올해 2월 2일 아침에 잠을 잘 때, 저는 커다란 눈 하나가 깜빡이며 저를 보는 것을 두 번이나 보았고 저도 그를 보았습니다. 당시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천목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 어쩌면 이것이 제 자신의 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두렵지 않았고 매우 재미있고 귀엽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오 언니 수련생에게 이야기했더니, 언니는 제 천목이 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공부가 얕았던 탓에 그 말을 듣고 내심 솟구치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것을 인식했고 다음에는 환희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한번은 수련생 집으로 법공부를 하러 서둘러 가야 했는데, 지하철에서 뾰족구두를 신고 계단을 오를 때 빠르고 가벼우며 전혀 피곤하지 않아 마치 제 자신이 둥둥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정말 뾰족한 구두코만 계단에 닿은 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제가 법공부 시간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에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뻤지만 이내 또 환희심이 불쑥 튀어나왔음을 의식하고 즉시 그것을 제거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꿈속에서, 그리고 제5장 공법을 연공할 때 저는 모두 사부님을 뵈었고 또 하얀 파룬(法輪)이 제 몸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신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사부님께서 제자를 격려해주시는 것임을 알았기에 마음속으로 연거푸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연공 중의 신기한 느낌

올해 9월 10일 아침에 연공할 때, 제2장, 제3장, 제5장 공법을 연공할 즈음에 사부님께서 저를 또 격려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제게 의식은 있으되 몸이 없는 느낌을 장시간 느끼게 해주셨고, 제가 가볍게 떠

서 연공하는 것을 느꼈으며, 매우 가볍고 텅 빈 상태로 몸의 물질이 우주 물질과 융합되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또 금방 이런 물질을 거두어들여 몸이 있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느낌이 의식이 아주 또렷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5장 공법을 연공할 때, 천장에서 사부님께서 제 뒤에 앉으셨고 저는 사부님 앞에 앉아 연공했습니다. 제 앞에는 사부님과 저를 향해 무수히 많은 하얀 사람 머리들이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제가 마주한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너무나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가볍게 떠 있는 것 같았고 한 시간의 정공이 끝날 때까지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자신을 일깨웠고, 그러고 나서 연공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저는 아직 미혹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일깨움과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사부님께서 제게 일깨워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등 뒤에 앉으신 것은 사부님의 보살핌이 있으니 두려워 말고 마음 놓고 하라는 뜻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닫자 다음 날인 9월 11일 아침, 사부님께서는 제4장 공법을 연공할 때도 이런 느낌이 나오게 해주셨으며 동시에 합곡혈에서 다량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부님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내가 여러 차례 병업 고비를 넘긴 신기한 경험을 목격하시다

올해 한번은 제 왼쪽 콧구멍 안 우측에 작고 붉은 종기가 났는데 내버려 두었더니, 다음 날 왼쪽 머리로 번졌고 머리가 아프고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으며 왼쪽 얼굴도 부어올랐습니다. 얼굴 전체, 머리, 귀가 모두 붓고 아파서 아주 괴로웠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제가 심각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다들 제게 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일

고등학교 시절, 퍼스 시내 중심에 있는 대법 진상 부스에서 행인에게 진상을 자주 알렸습니다. 대다수 행인은 바쁘게 잠시 머물다 가기에 요점을 빠르게 전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중요한 기술은 지금 시간이 촉박한 정치인들과 대화할 때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미국의 청년 수련생들과 협력해 4개 언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국제 청년 대법제자 교류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수련생들과 협력하고 대법 항목을 조율하는 데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청년 대법제자 팀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해 인포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을 배웠는데, 이 기술은 국회 행사를 위한 각종 브리핑 자료와 초대장을 디자인할 때도 마침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자신을 돌파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보다 내성적이었고 사교성도 부족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집에서 조용한 편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진상을 알리려면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더 자신감이 생겼고 말도 더 조리 있게 잘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 글쓰기에 전혀 소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쓰기가 강점이 아니라고 하셨고, 저도 결국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글쓰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지금은 우리 브리핑 자료의 대부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중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분의 침착하고 이성적인 성격도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더 나은 협조인과 협력자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묘한 안배 같았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데 필요한 많은

표현이며 대법제자가 대법에 대해 깊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에 동화하려는 결심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저의 수련 심득으로 여러분과 나누며 함께 격려하고자 합니다. 층차가 제한적이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대만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 발언 원고)

어떤 고난이든 모두 위로 제고하는 계단이다

글/ 호주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수련생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수련하시기에 어려서부터 법을 얻었습니다. 수련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중학교에 올라간 해가 돼서야 비로소 수련에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련 과정을 되돌아볼 때마다 치밀한 안배에 감사함을 느꼈고, 사부님께서 경문 '다시 방할(棒喝)하노라'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련의 엄밀함은, 한 고리 한 고리 연결되어 있으며, 설사 매 시각, 매 일보마저 교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2024년은 처음으로 정부에 진상을 알리는 일에 참여한 해입니다. 전년도에 서호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캔버라로 이사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과거에 참여했던 모든 대법 항목이 기초를 다져주었고, 정부에 진상을 잘 알리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념지차(一念之差)'에 관한 법이 생각나서, 저는 속으로 "나는 병이 없어. 이건 사부님께서 내게 업을 소멸해주시는 거야. 좋은 일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발정념을 해 구세력의 교란을 제거한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매일 법공부와 연공을 하며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것은 완전히 나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저는 다발성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고 예전에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현지의 한 권위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근종이 또 아주 커져서 반드시 수술해야 하며 자궁 적출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발생했지만, 저는 깊이 생각한 후 평소에 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여겨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을 얻었기에 저는 제게 사부님이 계시고 저는 병이 없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여러 차례 병업 고비를 넘긴 신기한 경험을 직접 목격하셨고, 게다가 수련 후 제 성격이 변한 것을 보시고는 그분들도 대법 책을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매일 명혜망 라디오에 나오는 수련생의 교류를 들으시고 매일 '전법륜' 책을 보십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연공을 하시는데, 지금은 공법 동작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셔서 제1장과 제2장밖에 못 하시지만 대법을 향한 두 분의 이런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쁩니다.

4. 정진실수(精進實修)

두려움을 돌파하고 확고히 수련하다

'전법륜'을 세 번 다 읽은 후 나타난 기적들이 제 수련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고, 저는 본격적으로 법공부와 연공을 시작했습니다. 막 법공부와 연공을 시작했을 때 제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법이 건강에 좋고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한편으론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책을 보고 연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수련생들의 단체 법공부 팀

에 들어가 수련생들과 함께 단체로 법공부를 했습니다. 법공부 팀 수련생들은 모두 아주 좋았는데, 그들은 중국공산당(중공)이 무엇인지, 중공이 왜 파룬궁을 반대하는지 등 더 많은 파룬궁 진상을 제게 알려주어 악당의 본질을 철저히 깨닫게 했고 대법이 모함을 받고 제자들이 박해받는 진상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과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도신(佛·道·神)의 수련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이로써 저는 만고에 만나기 힘든 대법 수련의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고 수련에 대한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경사경법하며 진지하게 법을 공부하다

우리 법공부 팀 수련생들은 모두 경사경법(敬師敬法)하며, 법공부 시에는 다들 반가부좌나 결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모두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며 법공부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반가부좌로 법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을 확고히 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인지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加持)해주셔서 아무리 아파도 다리를 내리지 않고 버텼고, 그래서 법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가부좌를 한 채로 한 강의 법을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법을 배울 때마다 저는 계속 반가부좌를 고수했습니다.

사람의 관념을 돌파하고 아침 연공을 견지하다

업무상의 이유로 매일 아침 6시에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단체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매일 그 수가 수십 명에서 백여 명에 이릅니다. 저는 '내가 지금 수련을 하니 수련인에게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법을 통해 알고 있어. 내가 비록 막 수련을 시작했지만 파룬따파는 가장 높은 우주대법이라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띠고 있지. 학생들을 데리고 운동할 때 이 바른 에너지를 학생들에게 전해주어 앞으로 그들이 법을 얻고 구원받을 인연을 맺게 해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 3시 50분에 시작되는 중국 수련생들의 단체 연공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공을 마친 후 다시 이어서 학생들의 운동을

그래서 이 단락의 법을 외웠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이 법은 역시 매우 좋다고 여기지만, 하려면 아주 어렵다고 한다. 사실 나는 어렵고 어렵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속인으로서 수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수련이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고 불가사의하며, 수련 성취할 수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는 속인이라, 그는 수련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는 아주 어렵다고 볼 것이다. 노자는 말했다. "상사(上士)가 도(道)를 들음에 근면히 행하고, 중사(中士)가 도를 들음에 있는 듯 없는 듯하며, 하사(下士)가 도를 들음에 대소(大笑)하거니,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도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데 아주 쉬운 것으로서, 무슨 너무 높아서 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다."(전법륜)

그 후로 매우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단락의 법을 한 번 외웠습니다. 외우고 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여기지 않기만 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스쿠터를 탈 때도 외우고 길을 걸을 때도 외웠습니다. 영업 방문을 하기 전에도 외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득실을 따지는 마음을 없애며 상실감과 소극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저의 깨달음은 어떤 단락의 법을 숙지하여 외우고 나면 그 방면의 법리에 대한 깨달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방면의 오성이 높아졌고 그 방면의 심성이 높아져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의 고비와 시련은 더 수월하게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1년간 매일 정기적으로 '전법륜(轉法輪)'을 통독하는 것 외에도 법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심성의 제고와 수련의 돌파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을 외울 때의 마음가짐은 당면한 문제를 급히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 더 잘 동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며 밖으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성과 확고함의

이 경험을 통해 영업하면서 거절당할 때 사라지는 업력 역시 수련인의 업력을 소멸해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업력은 고정돼 있어서 이쪽에서 많이 소멸하면 다른 쪽에서는 적게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절당하는 것이 꼭 그렇게 끔찍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체 영업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정말 큰 이점을 얻는 것입니다. 매체 업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대법을 실증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업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고 매일 많은 거절을 받으며 매일 아주아주 많은 업력을 소멸할 수 있고 또 많은 덕(德)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심성을 높일 수 있으니 이것은 정말 얻기 힘든 기회입니다.

5. 법 암기로 심성을 높이고 난관을 돌파하다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고비를 넘을 때 혹은 결정을 내릴 때 사부님의 법이 떠오른다면 고비를 넘을 수 있고 에너지가 생기며 법의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 자주 어떤 고비에 부딪히는지, 제게 아직 어떤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있는지, 어느 방면의 심성을 더 높여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법리를 외워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고비를 넘을 때나 넘기 전 혹은 일을 할 때 법의 힘이 필요할 때 주도적으로 떠올리거나 주도적으로 그 단락의 법을 외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대법을 실증하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가끔 이것이 그야말로 너무 어렵다, 정말 너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매우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속인의 생각이며 이 문제를 법에서 인식해야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매우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법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이끌었습니다. 수련생은 매일 다섯 가지 공법을 한 번에 끝까지 해내는 것은 신수련생에게 이미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새벽 3시 50분의 중국 단체 아침 연공은 수년간 수련한 많은 수련생조차도 돌파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침에 단체 연공에 참가하려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1시간 포륜을 돌파해야 비로소 중국 수련생들과 연공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갓 법을 얻은 신수련생인 제게 그 난이도와 어려움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남을 위하는 제 이런 소원이 대법의 '진선인(眞·善·忍)' 법리에 부합하여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을 얻은 지 2개월 후 1시간 포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중국 대법제자들과 함께 연공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연공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지럽고 메스꺼움이 나타났으며 몇 번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부님께 가지하고 보호해주실 것을 청하며 구세력이 제 연공을 교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나는 대법제자다. 나는 오직 대법 사부님만 관장하신다. 사부님께서 가지하시어 내가 연공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이렇게 한 번 한 번 넘겨왔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단체 아침 연공에 참가하고 낮에는 일까지 해야 하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며 도리어 정신이 아주 맑습니다. 대법은 참으로 너무나 초범적이어서 사람의 관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부님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격려해 준 수련생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집착심을 수련해 버리고 결가부좌를 돌파하다

법공부를 시작해서 거의 1년이 다 될 때까지 저는 법공부와 제5장 공법을 연공할 때 모두 반가부좌를 고수했습니다. 예전에도 반가부좌를 한 적이 있어서 '반가부좌를 얼마 동안 하고 나면 결가부좌는 좀 빨리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

간 반 동안 연공을 견지하고, 수련 중에서 살을 에듯 뼈에 사무치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버렸음에도,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정, 자식에 대한 정, 남녀의 정,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 등등을 하나하나 다 버렸지만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결가부좌를 할 수 없어 속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괴로웠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아 제게 조급해하는 마음과 과시심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오 언니 수련생과 교류하던 중, 언니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생각해 본 후, 남녀의 정과 딸에 대한 의존심을 깨끗이 버리지 못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수련인으로서 마땅히 이런 정을 자비심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특례는 없고 분별심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 단번에 결가부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로지 정성을 다해 법공부하고 연공하며 마음을 닦기만 하면 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사부님께서 안배하십니다. 심성이 제고되어 올라오기만 하면 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저는 매일 1시간 포륜을 견지하고 법공부와 연공 시 모두 결가부좌를 견지하며 큰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전남편에 대한 원망심과 질투심을 버리다

전남편과 이혼한 지 거의 7년이 됐지만 그는 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른 후에 생각하겠다며 줄곧 짝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이 일로 저와 그는 한 번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허리가 몹시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적어주며 매일 진심으로 이 아홉 글자를 염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파룬궁인 것을 눈치채고는 크게 화를 내며, 제가 반당 분자고 사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게 파룬궁을 배우지 말고 자신과 재결합해서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매체 광고 영업을 하다 보면 매일 수많은 약속 잡기와 방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고객의 거절도 마주하게 되는데 엄청난 거절을 당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전화 걸기가 싫어지고 전화를 걸거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건이 꽤 희망적으로 보였는데도 마지막에 결국 고객에게 또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매일 거절당하다 보면 심지어 호의를 베풀었다가 냉대를 받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나고도 끊임없는 거절을 마주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소업하는 방식의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련인은 소멸해야 할 많은 업력이 있습니다. 매일 연공할 때 다리가 아프고 팔이 시큰거리는 등 이렇게 고생하는 것으로 소업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심성에서의 마찰 역시 소업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소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거절당해 이 불편함을 감당하면서도 영업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계속 끈기 있게 해나간다면 이 역시 소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 고객의 다양하고 수많은 제품도 접하게 됩니다. 한번은 고객의 제품을 체험해 보려고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패치를 사용했습니다. 며칠 밤 붙여보았더니 과연 눈이 좀 편안해졌지만 그에 따라 곧바로 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더 아파져서 결국 치과에 가서 신경을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패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업력은 고정돼 있어 이쪽에서 소멸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소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편안해지니 치아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쪽이 불편하지 않으면 저쪽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건강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업력이 직접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업력은 다른 곳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약속이 잡히고 어떤 때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반면 어떤 사람은 다소 냉담하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때는 약속 잡기에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했습니다.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똑같은 화술과 설명을 늘어놓아도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꼭 성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안배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영업이 성사되는지 전화로 약속을 잡을 수 있는지는 아마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나 화술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없기 때문일 것이며 저 자신의 수련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의 배치였고 이렇게 큰 한 가지 사건으로, 대단히 질서가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이 걷는 매 한 걸음,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의 크기마저도 모두 안배된 것이라는 말인데, 당신은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박해 중에 몇 마디 외칠 것인지, 당신을 몇 차례 때릴 것인지 그것은 모두 그것들이 안배해 놓은 것이다. 물론 수련인의 정념이 강한지 여부도 이런 것들을 개변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각지 설법 13-2014년 샌프란시스코 법회 설법)

이 법리를 깨달은 후 득실을 따지는 마음을 좀 내려놓았고 두려움도 어느 정도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그저 최선을 다해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배의 결과가 어떨지는 볼 수 없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제가 반드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진지하고도 방대한 양의 행동뿐입니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전법륜)라는 이 법리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4. 고객의 거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신은 대법을 잘 몰라요. 대법은 중공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에게 중공의 악행과 대법제자에 대한 모함 및 박해를 이야기해주었고 아울러 대법은 우리에게 진선인에 부합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어디서나 남에게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반대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대법을 굳게 믿고 굳건히 수련하는지에 대한 한 차례 시련임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법공부가 깊지 않아 그를 설득할 더 많은 이치를 말할 수 없음이 속으로 아쉬웠지만 저는 두렵거나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서 제 곁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를 향해 발정념을 하여 배후에서 그를 조종해 대법을 배척하게 만드는 중공 공산사령(共産邪靈)과 난귀(爛鬼) 요소를 제거하고 악당이 그를 조종하는 것을 해체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반복해서 발정념을 한 지 대략 10여 분이 지나자 그는 마침내 조금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생에 우리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 하늘도 참 짓궂지, 앞으로 당신은 당신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 테니, 당신의 어떤 일도 나와는 무관해.” 나중에 그는 또 아이를 시켜 제게 ‘사상 공작’을 하게 해 대법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걱정을 덜어주자 아이는 제게 안전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후 한 달도 안 되어 전남편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이미 자신의 행복을 찾았으니 저더러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빌어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에 아이는 모두 전남편 쪽에 가 있었고 저와는 줄곧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괴로웠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고독감을 느꼈으며 전남편에 대해 원망심과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서서히 법공부를 함에 따라 저는 원망에서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남편이 이런 방식으로 제가 정진하도록 격려해준 것에 감사했고 그가 아이의 일상생활을 돌보아주어 제가 안심하고 법공부와 연공을 할 수 있게 해준

데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가 찾은 새 여자친구가 곁에서 그를 돌보아주는 것과 제 딸을 보살펴주는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전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유와 조급함을 수련해 버리다

예전에 제게는 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특히 사이가 가깝거나 친한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할수록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자신을 일깨우면서도 참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과 따지고 말다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번은 제가 수련생인 하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는 받지도 않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또 이 고질병이 도져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며 초조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등 온갖 두려움이 다 나왔습니다. 법공부를 한 후 저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세력이 제 집착심을 이용해 제 생각을 조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게서 두려움, 쟁투심, 의심, 억울한 마음, 조급함,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찾아낸 후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본연의 참된 내가 아니야. 너희는 후천적으로 구세력에 의해 내게 덧씌워진 것들이라 나는 인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 나는 너희를 전부 없애버릴 거야. 나는 사부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가장 본연적이고 참된 나를 원해.'

안으로 찾는 것을 배우다

최근에 하오 언니의 자동차에 물이 새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근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또 인터넷으로 옷을 샀는데 이것이 누락이

면 연공을 더욱 빠뜨리지 않게 될 테니 정말 일거다득이었습니다. 곧바로 아내와 의논한 뒤 다음 날 연공장에 가서 연공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기간에 마침 광고 영업 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밖으로 나가 연공한 후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건이 계약됐습니다.

밖으로 나가 연공했기 때문에 사부님께서 격려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저는 매일 밖으로 나가 연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매일 이른 아침에 5가지 공법을 모두 마치고 나니 상당히 뿌듯합니다.

3. 매체 영업 직원으로서의 심득

제 업무는 모르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NTD TV 광고를 소개하려고 만남을 약속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번은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0800 고객 서비스 번호로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후 상대방에게 성함을 여쭤보니 성이 ○씨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그 회사 대표의 성이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 혹시 ○ 회장님이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NTD TV입니다. 6개의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청자들이 모두 건강을 매우 중시해서 귀사의 건강식품 광고를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들 방송국을 압니다. 본 적이 있어요. 와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팀장과 함께 몇 차례 방문한 뒤 계약을 맺고 협력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들은 수련생들이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0800 전화는 보통 고객 서비스 직원이 받는데 사장과 직접 연결될 기회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부님의 안배임을 알았습니다. 단지 사람의 층면에서 이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입니다.

영업 경험이 점점 풍부해지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문 약속을 잡으려고 다른 회사들에 전화를 걸 때마다 똑같은 화술을 구사했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영화 해설 영상 보는 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영화 전체를 볼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 일과를 마치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짧은 영화 해설을 보며 갈증을 해소하고 긴장을 풀려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연속해서 몇 시간씩 보기도 했습니다. 집착이 심해 아내에게 들켜 제지당하면 오히려 화를 낼 정도였고 이미 아주 강렬한 집착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공할 때도 머릿속에 이런 영상 화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아내 수련생과 저는 이런 좋지 않은 영상이 마치 토사물처럼 더럽고 역겹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미혹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런 좋지 않은 물질을 눈을 통해 안으로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일깨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다시는 영화 해설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때로 또 보고 싶어질 때면 다시는 보지 말자고, 시간 낭비고 집착심을 키울 뿐이며 또 보면 다시 토사물을 치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일깨웠습니다. 지금은 이미 오랫동안 이런 부류의 영상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토한 이웃에게 정말 감사해야겠습니다. 제게 경각심을 일깨울 기회를 줘서 이 강렬한 동영상 시청 집착심을 발견하고 또 없앨 수 있게 해줬으니 말입니다.

2. 안일함을 돌파하고 연공장에 가서 연공하다

2025년 12월 어느 날 갑자기 사부님의 법 “붉은빛으로 씌워졌고 온통 붉은 것을 보았다”(전법륜)가 떠올랐습니다. 제 기억에 이것은 연공장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연공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좋고 신성한데 왜 연공장에 가서 연공하지 않을까? 본래 매일 연공해야 하는데 집에서 연공하기보다 왜 야외에 나가서 연공하지 않는담?’ 연공장의 에너지장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법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습관을 들이

며 여기에는 색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했고 아울러 발정념을 하여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안으로 찾아보니 제게 정에 대한 집착이 몹시 무거웠고 가장 넘기 힘든 것이 바로 정의 고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순간 몹시 괴롭고 마음이 공허하며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때면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하신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難忍能忍, 難行能行)”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각자(覺者)로 수련 성취하려면 반드시 정을 담담하게 내려놓아야 비로소 사심이 없고 자아가 없는 진정한 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실수하다

현재 저는 수련 중에 아직도 많은 집착심이 남아 있음을 알며, 당장 돌파해야 할 주요 측면이 다음과 같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차례 정각 발정념을 아직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밤 12시에는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일찍 자야 한다는 핑계로 아주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사상은 바꿔야 하며 이것은 속인의 사유입니다. 저는 대법제자이므로 수련인은 응당 속인의 관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수구(修口)하지 않는 것, 과시심, 이기심, 남을 가르치려 드는 마음이 아직 무겁습니다. 때로는 천목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 또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저 자신의 더 많은 사람 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역시 제가 앞으로 더욱 정진실수하도록 재촉합니다.

지금 저는 제 주변 환경도 갈수록 평온하고 상서로워짐을 느낍니다. 하오 언니 수련생의 도움으로 저도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현재로선 매우 제한적이고 아직 꺼리는 마음, 두려움 등을 돌파하지 못해 단지 제 가족과 개별적인 친구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게 하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돕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

지만 저는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반드시 두려움을 돌파하여 인연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진상을 깨닫고 대법의 제도를 받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년간 수련해 오면서, 비록 법을 얻은 시간은 짧지만 저는 자신이 법 안에서 비약적으로 승화했음을 절실히 느꼈고 어디에나 계시는 사부님의 보호와 대법의 신기하고 초범적인 점을 느꼈습니다. 참된 법을 얻고 심성이 승화된 후의 그 기쁨과 행복, 그리고 법 속에 목욕하는 즐거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얻기 전후의 경험과 변화를 되돌아보면 저는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제 병을 고쳐주기 위해 저를 데리고 부처님께 빌면서 사찰을 동경하게 된 일, 12살에 교통사고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일, 출가하지 않은 것, 이혼, 사업 실패, 두 번이나 대법과 인연이 엇갈린 일에서부터 대법을 얻고 정진실수하기까지… 이 길을 걸어오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다 사부님께서 그동안 줄곧 저를 보살펴주신 것이었으며 저의 득법 인연을 세심하게 안배하시어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을 향한 제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직 자신을 잘 수련하고 인연 있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여 사부님의 합격된 제자가 되는 것만이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해외법회

매체 영업 직원으로 일하며 얻은 수련 심득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에 법(法)을 얻었고 현재 NTD TV에서 광고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수련 심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속인 영상을 보는 집착을 없애다

어느 날 아침에 깨어 연공하러 나가려고 5층 집 문을 열자마자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속으로 '뉘 집 쓰레기를 제대로 안 묶어 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1층에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바닥에 토사물이 한가득 있었고 1층 전체에 짙은 위산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이 건물 청소를 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청소 도구를 가져와 깨끗이 치워야 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미끈거리고 끈적거려 치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청소한 후에도 냄새가 심하게 나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다시 바닥을 닦았고 주말에 또 3번째로 닦았습니다.

이후 아내 수련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심할 수 있지? 공용 공간에 토해 놓고 왜 안 치우는 거야? 정말 너무 공중도덕이 없어!" 아내는 수련인이라면 안으로 찾아봐야 한다며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아마 전날 밤 우리가 함께 속인의 영화 해설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거라고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동안 국보도 저를 찾았기에, 아들은 제게 시내로 피신했다가 수련생들이 돌아오면 그때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서 5일간 숨어 지낸 뒤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저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출근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한 수련생 집에 가서 명혜 라디오 녹음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련생 집에서 나설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련생이 걸칠 옷을 찾아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세차게 쏟아졌는데, 지나가던 승용차가 멈춰 서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다른 승용차가 다가왔고, 운전자가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건물 밖 방범문으로 들어설 때는 신발에 물이 찼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옷을 벗어보니, 수련생이 비를 가리라고 준 옷이 조금도 젖지 않았고 제 몸 전체도 폭우에 전혀 젖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셨구나!' 저는 몹시 감동해 마음이 뜨거워졌고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부님과 대법을 더욱 믿으며 정진해 수련했습니다.

맺음말

수련 과정에서 저에게는 조급한 마음 등 아직 닦아버리지 못한 사람 마음이 많습니다. 때로는 법공부를 할 때 졸거나 정신이 흐트러지고 발정념을 할 때 손바닥이 쓰러지기도 하지만, 최대한 저 자신을 잘 수련하려 노력합니다. 저는 '전법륜(轉法輪)'을 두 번 외웠습니다. 수련생들과 법공부 팀에서 법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가부좌를 잘하고 앉아 두 강(講)의 법공부를 마친 뒤 다리를 풉니다. 수련생이 고비를 넘길 때면 최대한 도와주며 함께 법공부와 발정념을 하고, 교류할 때는 과시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부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9년 이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고 퇴직 전에는 대학교 교사였습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한 후, 대법을 수호하고 사부님을 위해 공도를 되찾고자 수련생과 함께 몇 차례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했으며, 마지막에는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입니다. 대법이 고난을 겪고 중생이 중공의 거짓말에 속아 위험에 처해 있으니, 그들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려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며 진상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래에 제가 직장의 편리함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상을 알렸는지 교류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진상을 알리다

대부분의 과목에는 '서론'이라는 장이 있어서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 과목의 '서론'을 강의할 때마다 사전에 특별히 마음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 수업이야말로 제가 대법 진상을 알릴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론'에 나오는 특정 지식을 도입부로 삼아 사전에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 즉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하면서 대법 진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빠르게 곁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얼굴은 마

음에서 생겨나니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어야 외모도 아름다워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관련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백스터 효과를 설명하며 만물에는 모두 영(靈)이 있다고 했고, 간체자와 번체자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며 도덕 수양을 중시해야 한다고 한 뒤 신전문화(神傳文化)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사문화를 이야기해 그들의 무신론과 진화론 등 현대 관념을 타파했고, 물질은 무한히 나눌 수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현대 과학이 우주를 인식하는 한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기루, 비행접시, 버뮤다 삼각지대, 다른 공간을 이야기했고 고대 의학자들이 왜 대부분 초능력을 지녔는지, 수련 문화, '백일비승(白日飛升)'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었기에 학생들은 정신을 집중해 들었고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저 자신도 강의를 하다가 때로는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오직 강의에만 몰두해 저 자신을 잊어버리는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든 정보원(반마다 교사의 언행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수시로 학교에 보고하도록 지정된 학생)이든 이런 것들은 모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무심결에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 불가(佛家)의 수련 대법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심하게 박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그리고 파룬따파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비교적 넉넉해서 기본적으로 2교시 분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시에는 약간의 시간을 남겨 '서론'의 다른 내용들을 간단명료하게 전부 마쳤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비교적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수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선 반 전체에 전면적으로 대법 진상을 펼쳤고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인기 학과는 한 반의 학생 수가 무려 13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만약 방과 후 다른 환경에서

며 그 사람이 저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부님께 청했습니다. 그 일념이 생기자, 그 사람은 머리에 아주 밝은 랜턴 모자를 쓰고 길을 걸으면서도 저를 비추지 못했고 입으로는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보였는데 어디 갔지?"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진상 자료를 다 배포한 뒤, 차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중생은 모두 법을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각지 설법 5-2004년 미국 서부법회 설법)

공안·검찰·법원(공검법) 직원들도 구해야 했기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파출소와 국보에 진상을 알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십여 차례나 박해받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공검법 직원들은 중공 악당의 지시를 받고 진상을 모른 채 대법을 박해하고 있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생명이기에 구해야 합니다.

수련생을 구출할 때 저는 검은 소굴로 편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훗날 한 감옥의 '610 사무실' 우두머리는 진상을 알고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며,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죽음의 자리'인 '610'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제게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은 진상을 알리는 중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오토바이에 저를 태우고 휴대폰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가는 길에 운반공을 써서 휴대폰을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이 일념을 가진 후 아들과 저는 길 중간에 내렸고, 아들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제 휴대폰 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을 찾아보니 휴대폰은 아들의 오토바이 안장 위에 있었습니다(전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러 나갔을 때 3명의 수련생이 모두 납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저더러 그 자리에 서 있으라 하더니 그냥 가버리며 저를 잊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떠올리고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그 후 수련생들은 불법적으로 3년

제 몸은 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저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므로 사부님을 도와 중생구도를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태해질 때면 자주 '나는 정법시기 대법제자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정념이 강해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대대 사무실 안에 대법을 모독하는 표어와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저는 스쿠터를 타고 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대대 회계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기에게 볼일이 있어 왔습니다"라고 하자, 회계는 서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대법 비방 전시판을 뜯어내 외투 품에 넣고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난로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올해 악당이 우리 마을 세 곳에 대법을 모독하는 전시판 3개를 걸어놨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청했습니다. '저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입니다. 모든 바르지 않은 요소를 바로잡아 이 부패된 물질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거할 테니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해 주십시오.' 저는 두 시간 동안 걸어 다니며 악당의 전시판 현수막 세 개를 잘라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와 대법의 위력이었으며, 저 자신도 여러 번 발정념을 했고 다른 공간의 호법신들도 저를 도와주었기에 사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8.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다(기적 체험)

'장쩌민 고소' 바람이 거세게 일 때, 우리 지역 수련생들은 아주 빨리 깨닫고 잇따라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저도 집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정 자료점)를 열었습니다. 외지 수련생들이 자금을 지원해 준 덕분에 진상 자료를 대량으로 만들어 중생에게 배포했습니다. 때로는 밤에 혼자 4개 마을을 돌며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한 마을에 막 들어서서 스쿠터를 세우고 자료를 배포하려는데 한 사람에게 들켜 그가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발정념을 하

이야기한다면 이런 인원수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인상에도 비교적 깊게 남았는데 그때 그들은 모두 진지하고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수업에서는 이런 기회를 찾아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저와 학생들의 거리도 단번에 가까워졌고 대부분의 학생은 제게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저를 친근하고 소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무척 편안해했고 제게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후에 다른 환경에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기초가 됐습니다.

이 일이 해당 캠퍼스의 교무처에 알려졌을 수 있는데(정보원이 보고했는지 카메라에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제가 수업할 때 교무처 직원이 때때로 강의를 들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상 알리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저는 평소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항상 제자 곁에 계시고 저는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우주에서 가장 바른 일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 과목의 첫 수업에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채고 제 수업을 들으러 오려 했을 때는 제가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후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년 동안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제가 바르게 행하고 사상이 법에 있기만 하면 사부님께서 제자를 도와주시어 교란이 적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

수업 시간에 진상을 알린 기초가 있었기에 다른 환경에서 다시 입을 열어 진상을 알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 한 묶음을 학교에 가져가 쉬는 시간에 곁에 있던 몇몇 학생에게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싶다고 하자,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는 모두 몰려와 서로 가지려고 해서 순식간에 다 동이 났습니다. 때로는 진상 전단지를 몇 장 인쇄해서 쉬는 시간에 개별 학생들에

게 보여주고 다 보면 거둬들였습니다.

한 학생이 '전법륜'을 보고 싶어 해서 휴대용 소형본 하나를 가져가 쉬는 시간에 몰래 줬습니다. 방학이 돼 학생은 고향에 가져갔고 학교로 돌아올 때 고향 특산물을 가져와 감사를 표했는데, 이는 이 학생이 대법을 인정하고 대법 진상을 받아들였으며 제게도 깊은 신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쉬는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삼퇴를 권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전해졌습니다. 한번은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이 제 교실로 찾아와 자발적으로 삼퇴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나요?"라고 묻자, 그는 "다른 친구가 알려줬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삼퇴를 해줬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대만에 여행 갔을 때 파룬궁수련생들이 중산자유광장에서 가부좌하는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돌아올 때 세관을 통과하다가 들켜서 몇 시간 동안 구류됐어요."

한 학생은 꿈속에서 자신이 한때 협객으로 환생한 적이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이 확실히 모두 내력이 있고 모두 법을 위해 왔으며 제도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법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으니 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전과 오후 모두 수업이 있어서 점심에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교사 전용 휴게실이 있었지만 저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9평 공산당'이 막 발표돼 삼퇴를 권해야 했기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학생 기숙사에 가서 진상을 알리려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반들 중에서 어느 날에 어느 반 수업이 있는지, 각 반

표했습니다. '진선인'의 법력이 그를 통제하던 사령의 요소를 제거하자 그는 정신을 차렸고 사부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한번은 어느 마을에서 진상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진상을 듣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전화로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오게 하겠어." 저는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참 선량한 분 같네요. 누가 그런 짓을 한다 해도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 말을 들은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수련생과 함께 다시 그곳에 갔다가 그 사람을 또 만났는데, 그는 아주 흔쾌히 진상 자료를 받아 들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동안, 우리는 해마다 꾸준히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며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한번은 어느 마을에서 한 집 문 앞에 많은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진상을 알리자 모두 삼퇴했는데, 가명을 쓴 사람도 있고 실명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꺼내 그들이 더위를 식히던 나무에 걸려 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현수막을 받아 자기 집 문 앞 나무에 걸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수막을 걸러 나갔는데 제대로 안 걸려 떨어졌습니다. 마당에서 나온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집어 들어 다른 곳에 걸려 하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게 주세요. 제가 대신 걸어 드릴게요." 그러고는 자기 집 문 앞 나무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4·25', '5·13', '7·20'과 설날에도 거의 빠짐없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이 없으면 직접 천을 사서 글씨를 쓴 뒤 나가서 걸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현수막 글씨를 쓴 적이 있는데 페인트 냄새가 아주 심해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사부님이 계시니 어떤 것도 제 몸에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의 이름도 제게 알려줘서 모두 삼퇴를 했습니다. 한 무리의 노동자가 떠날 때 저는 그들에게 진상 자료를 한 부씩 나눠줘 집에 가져가게 했습니다. 장기간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손을 들고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한번은 한 책임자가 집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합니다. 할머니가 주신 그 호신부(護身符)를 직장 동료가 뺏어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른 두 사람은 죽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진상 호신부가 평안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저 입을 움직여 말하고 발로 뛰었을 뿐입니다.

7. 진심으로 진상을 알리고 사악 제거를 게을리하지 않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대면해 진상을 알릴 때, 수련생들과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4명으로 구성돼 마을로 들어갔고 두 사람이 한 거리를 맡아 집집마다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매번 30~40명이 탈퇴했고 두 팀을 합하면 70~80명이 탈퇴했습니다. 한번은 수련생과 함께 진상을 알리러 갔는데, 진상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와 다투며 진상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진상 호신부인 ‘진선인(眞·善·忍)’ 카드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가정과 생업이 있고 매우 바쁘지만, 당신을 구하려 온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뭐 하러 왔겠습니까?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재난을 피해 무사하도록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호신부를 낚아채듯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 저는 당원입니다. 외지에서 놀러 온 것이지 현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적고 사악한 당 조직에서 탈퇴시켰습니다. 떠날 때 그는 멀리까지 배웅하며 감사를

에 여학생 기숙사가 몇 개인지, 이번에는 어느 기숙사에 갈지를 마음속으로 계산해 최대한 빠뜨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전에 그녀들에게 “오늘 점심에 기숙사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은 저와 직접 가까이서 교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곳이 있으면 제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타서 삼퇴를 권했는데 그녀들 중 일부는 아주 정의감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 매우 일리가 있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해 그들도 삼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때로 그녀들의 학업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도 잘 조절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아야 했는데, 그녀들도 오후 수업이 있어서 휴식에 지장을 주면 안 됐고 저 자신도 오후 수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갔던 기숙사는 다시 가기가 난처해서 그렇게 기숙사를 하나하나 안배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몹시 피곤했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사명이고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완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무슨 일을 하든 빨리하려 했고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성공을 서둘렀습니다. 온종일 어떻게 진상을 알릴까, 어떻게 삼퇴를 권할까만 생각하다 보니 법공부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진상을 알리는 일이 좀 순조로울 때는 일 욕심이 일어나 어서 빨리 모든 여학생 기숙사를 다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처음처럼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고 분명하게 설명하지도 못한 채 삼퇴를 권하며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법에 있지 않았고 이미 수련인의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으며 사전에 발정념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한번은 기숙사에서 진상을 알린 후 어느 학생이 학교에 알렸는지 몰랐지만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 캠퍼스에서 수업하지 못하게 하고 저를 다른 캠퍼스로 발령해 수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학생

기숙사에 가서 진상을 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잘하고 자신을 잘 수련해 언제나 법에 있어야만 사악에게 빈틈을 내주지 않고 더욱 잘 중생을 구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의 날들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대법을 품고 더욱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퇴직할 때까지 해나갔습니다.

학생들을 우리집으로 초대해 진상을 알리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우리집에 놀러 와요. 밥 해줄게요.” 학생들은 혼자 오기도 했고, 무리를 지어 5~6명이나 7~8명씩 오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한 여학생이 찾아왔는데 명혜망을 열어 보여주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어느 일요일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밥을 해줬는데 갈비탕, 생선조림이 있었고 따로 몇 가지 반찬도 볶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에 압력솥을 들고(솥 안에는 남은 갈비탕이 좀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떠 제 입가로 가져오며 “선생님, 국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무척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그들에게 과일을 좀 준비해 줬습니다. 한 학생이 “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과를 몇 개 더 먹어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그를 놀리며 “도대체 몇 개나 먹을 수 있는지 봐야겠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사과 세 개를 연달아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명백한 일면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저희는 담을 넘어 도망쳐 나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그 반 반장에게서 그들을 일찍 학교로 돌려보내 달라는 전화를

배포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자전거를 끌고 큰 자루에 ‘9평’과 진상 자료를 가득 담아 농촌으로 가서 배포했습니다. 밤새 걸었으며 왕복 거리는 20~30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 6시였고, 앞가슴과 등까지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초등학교 가족 아파트에 ‘9평’을 배포하러 갔습니다. 큰 쟁반에 ‘9평’을 담아 물건으로 덮어뒀는데, 덮개를 여는 순간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9평’에 신령이 깃들어 있으며 평범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 집에서 지냈는데, 그 기간에 서둘러 사람을 구하려 진상 CD를 배포했습니다. 아이 집은 200여 제곱미터인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건설 노동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씩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무리씩 왔다가 한 무리씩 떠났지만,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거실에서 ‘9평’ CD를 틀었는데, 끝날 때마다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삼퇴를 했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9평’을 한 권 줘서 읽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을 쓰는 한 남성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책을 주셨습니까? 그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읽더니 다 읽고 나서는 책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9평’입니다.” 그가 “저도 한 권 읽어볼 수 있을까요?”라고 해서 그에게도 한 권을 줬고, 그 역시 다 읽고 가져갔습니다.

직장 책임자가 노동자들을 보러 왔을 때, 책임자 차 앞 유리에 CD를 뒀습니다. 그가 두 번째 왔을 때 특별히 저를 찾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저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어서 손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책임자는 친근함을 표하려 기어이 저와 악수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집에 돌아가 CD를 보고 진상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때 왜 그에게 삼퇴를 권하지 않았을까!’라며 후회했습니다.

소방 설비 작업을 하는 한 무리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저는 그들의 책임자에게 진상을 알렸고 그는 삼퇴를 했습니다. 그는 함께 온 10여 명

복하며 수련생이 우리집에 오는지 지켜봤습니다. 당시 저는 현지 수련생을 몰랐고, 자료를 가져다주는 한 수련생의 아들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린 수련생이 다시 와서 사부님의 경문과 '명혜주보' 한 부를 줬습니다. 당시 파출소 사람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오면 제가 한 일이라고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어린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인정해선 안 됩니다." 저는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수련생이 떠난 후, 사부님의 신경문과 '명혜주보'를 다 읽었을 때 파출소 소장 일행이 또 찾아왔습니다. 소장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도 매우 엄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매일 찾아오는데, 혹시 밖의 전봇대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쓴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만약 제가 썼다면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네요!" 저는 말하면서 크게 웃었고 그들도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명혜주보'에 실린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당시 진상을 알릴 때 몸이 매우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웃었고 그들은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매우 정중하게 떠났습니다. 그 일로 저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어린 수련생을 보내 저를 일깨워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박해를 인정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을 해결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지혜를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6. '9평'이 빛을 발하다

2004년, 노동수용소에서 박해를 받고 돌아온 후 정법 노정에 따라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악한 당의 거짓말에 속고 있으니 대법제자가 그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9평공산당'이 세상에 나오자, 수련생들은 서로 협력하며 집집마다 대량으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웃음꽃이 피는 가운데 그들은 모두 삼퇴했습니다.

때로 그들이 무리 지어 오는데 제가 밥할 시간이 없으면 만두를 빚어 먹였습니다. 우리는 만두를 빚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집 근처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데려가 밥을 먹였습니다. 그때는 물가가 비싸지 않아 100위안 정도면 십여 가지 반찬을 주문할 수 있어서 상에 가득 차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기 어렵다며 매우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학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들 무리는 몇 걸음 가다가 고개를 돌리고 몇 걸음 가다가 또 고개를 돌리며 아쉬워했고 저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와 이 학생들은 과거 세상에서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이번 생에 이런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기만을 기다려왔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파룬따파의 구원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른 환경에서 진상을 알리다

한번은 캠퍼스에 막 들어섰을 때 길에서 제 학생 하나를 만나 그에게 삼퇴를 권했습니다. 그는 소선대에만 가입했었는데 즉시 승낙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바로 두 손을 번쩍 들고 "난 마침내 해방됐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후 다른 친구에게 들으니 이 학생은 농촌 출신인데 가정 형편 때문에 이미 퇴학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제때 그에게 삼퇴를 해줬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데 이후에 또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관련 실험을 할 때, 우리 이론 수업 선생님들은 사전에 그들에게 실험 내용과 실험 순서 등을 설명해 준 다음 학

생들이 직접 하게 하고 선생님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보통 교사 한 명이 실험실 하나를 맡았습니다.

실험을 할 때 때로는 학생들이 옆에서 실험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빈 시간에 저는 또 그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실험 수업을 맡을 때는 제가 가르치는 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제가 맡았습니다). 한번은 한 여학생에게 '천안문 분신자살' 진상을 알려주자 그녀는 진상을 깨닫고 즉시 돌아서서 다른 친구들에게 매우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천안문 분신자살'은 가짜야!"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뒤흔들 만한 비밀을 알게 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극에 속아 대법을 적대시하게 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진상을 알릴 때 반드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학생이 몰려와서 들었습니다. 한번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 학과에 저를 알리는 바람에 이후 제가 학생들의 실험을 맡을 때 자주 실험 조교(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실험용 약품을 제조하는 교사)가 제 실험실 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라 미소를 지었고 그녀도 오래 머물기가 미안해 쳐다보다가 가버렸습니다. 학과에서 저를 감시하려고 그녀를 보낸 것을 알았지만 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이야기해야 할 때는 여전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굳건히 다지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학과 서기도 이 때문에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단지 살짝 언급만 했을 뿐 대부분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겉치레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에게 진상을 알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매년 한 무리의 학생들을 맡아 졸업 논문을 지도했습니다. 논문 실험을 할 때도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점심에 학교에서 밥

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빨간 상의를 입고 하얀 신발을 신은 젊은 여자가 했습니다." 사실 그해 저는 51세였습니다.

3일째 저녁, 날이 막 어두워졌을 때 운영하던 작은 잡화점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 손자와 함께 자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빵을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는 동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안 팝니다. 빵이 없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출소에서 왔습니다. 문을 열어보세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왔다고 해도 안 엽니다. 며칠 전 강도들이 우리집 잡화점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고 유리를 깼습니다. 제가 문으로 도망치다 잡혀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 전화했지만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래자갈 작업장 건물 안으로 도망쳐서야 겨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당시 신고가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틈으로 명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 소장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안 봅니다. 안 믿습니다. 저는 늙은이 혼자 집에서 손자를 보고 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도 없으니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셨군요!"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그들이 간 후, 저는 인쇄용 판과 빨간 옷을 문 옆 아궁이에 밀어 넣어 태웠고, 진상 자료는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잡화점 문이 부서졌고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사방을 비추며 물건을 찾았습니다. 당시 3살 된 손자를 안고 있었는데 손자는 무서워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경찰차가 우리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네 집에 가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우리집에 오기 시작했고, 3~4명이 작은 가게 안에 앉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잠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필코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틈을 타 톈진 기차역의 큰 간판에 스티커 두 장을 붙였습니다. 기차에 탈 때는 열차 창문 바깥 양쪽에 한 장씩 붙였습니다. 3000여 리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다음 날 아침 기차에서 내릴 때 보니, 창문 바깥에 붙인 두 장의 스티커가 여전히 매우 선명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3일 만에 저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사부님께서 손에 대법서적을 들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법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존께서 보살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앞으로 잘해 사부님의 제도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5. 거리 곳곳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새기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줄곧 법을 실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번은 전봇대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표어를 새겼는데, 이것은 외지 수련생이 가져다준 인쇄용 판이었습니다. 붓 한 자루와 빨간 페인트 한 통을 샀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시멘트 전봇대에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시멘트 전봇대마다 모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칠했고 현지 파출소 문과 창문 주변에도 칠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야간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와서 어떤 글자를 칠하는지 봤지만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페인트 한 통을 다 쓰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길 양쪽의 시멘트 전봇대와 건물 곳곳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글자가 새겨졌고, 이는 현지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다음 날, 파출소에서는 현지에서 누가 한 짓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명단에 있는 파룬궁수련생을 괴롭혔고, 상점을 돌아다니며 페인트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야간 경비

을 먹을 때도 되도록 의식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앉아 기회를 찾아 진상을 알렸습니다.

우리 학교는 성인 교육도 개설했는데, 이미 직장에 다니는 성인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몇 가지 과목을 이수해 시험에 통과하면 전문대 졸업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교육반 담임은 보통 우리 학교 실험 조교들이 맡았는데, 이 교사들은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반의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담임 선생님은 그들에게서 돈을 걷은 다음 돈 봉투를 담당 교사에게 찔러주며 선처를 베풀어 최대한 그들이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한번은 담임 선생님이 제게 돈이 가득 든 봉투를 찔러주며 학생의 작은 성의이니 선생님이 그들을 좀 더 돌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완곡하게 거절했고 몇 차례 실랑이 끝에 결국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덕을 잃게 됩니다. 학생들은 제가 최대한 돌봐줄 테니 안심하세요." 담임 선생님은 제가 수련인임을 알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들에게 수업을 할 때 반 간부 몇 명이 함께 교단으로 올라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쩌면 이렇게 좋으신가요, 우리 돈 봉투를 안 받으시고. 다른 담당 선생님들은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도와주었습니다. 교단 아래의 다른 학생들도 듣고는 속속 올라와 저와 교류했습니다. 몇 명이 오면 저는 그들에게 삼퇴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일부러 다시 교단에 올라와 웃으며 제게 "선생님, 안전에 주의하세요(교실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에만 신경 썼는데 이것은 사람을 구할 기회이니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교무실에서 학생들이 돈 봉투를 준 이야기를 하자 교무실 주임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돈을 받아서 교무팀에서 쓰게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그들은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준 벽걸이 달력은 방법이 없어서 교무팀에 두고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저는 적지 않은 학생에게 파룬따파 진상을 알렸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매우 순진하고 선량했습니다. 몇 년 후 저와 어떤 학생들은 여전히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때로 제가 다시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면 학생은 “선생님, 그때 이미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수업이 그들에게 준 인상이 매우 깊었으며 대법 진상이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음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법공부를 진지하게 잘하고 법 속에 용해돼야만 이후의 길을 바르고 잘 걸어갈 수 있으며 자신의 역사 사명을 더욱 잘 완수하고 사부님을 따라 하늘의 진정으로 아름다운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저버리지 않고 저에 대한 중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고난 속에서 귀착점을 찾아 법공부를 견지하며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산시(山西)성 대법제자 샤오잉(曉英)

[명혜망] 저는 올해 64세로 현(縣) 소재지에 거주한 지 40여 년이 됐습니다. 저는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아이 다섯을 낳았으나 앞선 3명은 겨우 한 살 남짓 살고 요절했고 저와 남동생만 살아남았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 7월 18일, 저는 200위안을 챙겼고 배낭에는 달걀 몇 개, 옥수수 몇 개, 참외 두 개, 스티커 4장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 차를 몇 번 갈아탔고 무사히 베이징 천안문에 도착했습니다. 표를 한 장 사서 들어갔습니다. 문 몇 개를 지나 더 안으로 들어가려니 또 표를 사야 했습니다. 천안문 입장권은 매우 비쌌고 제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가방에 있는 돈은 집으로 돌아갈 기차표를 살 돈이었습니다. 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개찰구를 바라보았는데, 개찰구에 있던 그 사람이 저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마치 저를 아는 것 같았고 들어가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루 꼭대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온통 경찰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정념이 없었기에 법을 제대로 실증하지 못했으며, 마음속에 있던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말을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안문에서 내려온 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어떻게 천안문에서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배낭에 있던 스티커 4장도 아직 붙이지 못했습니다. 천안문 밖에 서서 성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부님,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한 경찰이 제가 고개를 숙이고 우는 모습을 보더니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좀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작은 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원에 들어가 의자에 막 앉았을 때, 입구 쪽으로 경찰 두 명이 와서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차를 타고 톈진 기차역으로 가서 스티커를 붙이려 했습니다. 밤이 되자 순찰차가 역 밖 숲속을 순찰하고 있었고, 숲에는 노점을 차리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있어서 스티커를 붙일 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타려던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됐지만,

들이 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정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민정 업무를 보러 왔다고 했고, 아무도 없으면 사무실 안에 자료를 뒀습니다.

일요일에는 학교 건물에 가서 교사 사무실에 진상 자료를 뒀습니다. 각 부서에 맞춰 관련된 진상 자료를 잘 포장했는데, 그중에는 맞춤형 자료도 있었고, 수련생이 출력한 자료,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자료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일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아서 교사 건물에 진상 자료를 가져다주러 갔습니다.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하지 않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두 층을 올라가자 그 사람도 두 층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진상 꾸러미를 놓을 기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저에게 뭘 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올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야 하니 이 꾸러미를 그분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놓으세요."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곧장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하에 저는 큰 꾸러미에 담긴 진상 자료를 학교 건물에 무사히 뒀습니다. 나중에 많은 교사가 그 진상 자료를 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학교는 우리집에서 매우 가까웠기에, 그곳 교사와 주임들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한 적도 있습니다.

4. 수련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베이징에 가서 대법을 수호하다

1999년 7월 이후 수련생들은 베이징으로 가서 법을 실증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사부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대법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하고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임신했을 때 제 큰어머니에게 맞아 아주 높은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으나 유산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법 사부님께서 이미 저를 보살펴 주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이후 어머니에게 젖이 나오지 않아 여러 집의 젖을 얻어먹고 자랐는데, 그중 제게 젖을 가장 많이 물려주신 분이 숙모였습니다. 자란 이후에도 어머니는 숙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열만 나면 경기를 일으켰기에 어머니는 저를 보물처럼 여기셨고, 앞서 잃은 세 아이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커서는 큰어머니가 온 가족을 향해 퍼붓는 폭언을 자주 들었습니다. 큰어머니는 한번 욕을 시작하면 반나절을 끌었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마음속에 억눌림과 원망,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주 근심을 안고 깊은 산속으로 농사를 지으러 갔습니다. 겹겹이 이어진 거대한 산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츰 맑아졌고, 큰 산속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산기슭에 자리한 크고 작은 석굴을 보며,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 신선이 있다고 하던데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구해도 보이는 것은 늘 현대 젊은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30여 세 무렵 속인 속에서 계속 타락하기 싫었으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 마음 깊은 곳에서 신선이 나타나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신기하게도 공중에 나타난 분은 역시 양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한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분이 바로 제 사부님이신 리훙쯔(李洪志) 대사님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청단에 가입할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입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산당 가입을 신청했으나 위에서 할당된 인원이 없어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부님께서 아주 일찍부터 저를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아했습니다. 같은 중국인

인데 왜 국민당과 공산당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까? 중학교 시절, 선생님을 욕한 초등학생 황솨이(黃帥)가 '반조류(反潮流) 영웅'으로 떠받들어졌고, 백지 답안지를 낸 장톄성(張鐵生)이 우리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줄곧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1. 법을 얻은 이후 인생의 귀착점이 생기다

저는 2006년에 법을 얻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우리는 오늘날 당신에게 내놓았고, 나는 이미 당신에게 받쳐 들어 주었으며, 당신의 집 문 앞까지 갖다 주었다."(전법륜) 제게 있어서 사부님은 정말로 대법을 제 두 손에 받쳐 들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전법륜(권2)'와 '정진요지'였습니다. 책을 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머리에 양복을 입으신 사부님의 법상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꿈이 이뤄졌음을, 줄곧 찾아 헤매던 은사님을 마침내 뵙게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만고에 만나기 어려운 우주 대법을 얻었고, 세상에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집을 찾은 아이처럼 귀착점이 생겨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인생의 이정표가 생겨 더는 타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행운아입니다.

수련을 시작하자 사부님께서 제 몸을 정화해주셨습니다. 심각했던 부인과 질환이 사라졌고, 해마다 여름이면 재발해 여러 번 주사를 맞고 수액을 맞아야 했던 장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몸의 모든 불편함이 일소됐고,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혈색이 좋고 하얀 피부에 홍조를 띤 젊은 저였습니다.

수련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비로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더는 다투려 하지 않고 안으로 찾아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게 됐습니다. 딸은 "엄마, 진작 이렇게 변하셨다면 아빠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어머니에 대한 원망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를 구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3. 정법 속에서 수련을 시작하다

같은 해(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의 전 당수 장쩌민은 질투와 편집증으로 인해 파룬궁을 미친 듯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파출소에서는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분증을 압수했으며 연공장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저는 단체 수련 환경을 잃었습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수련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을 욕했으며, 이치에 맞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을 수련한 후 이런 나쁜 습관이 모두 사라졌고 어디서나 남을 선하게 대했습니다. 파룬따파는 제 성격을 바꾸고 몸의 질병을 없애줬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TV에서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을 믿지 않았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법공부와 연공을 했습니다.

이웃 몇 명도 우리집에서 법공부를 하고 연공했습니다. 현지 파출소에서 집까지 찾아와 괴롭히자 이웃들은 두려워했지만 저는 계속 수련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저를 찾아오면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진상 자료를 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장님, 파룬궁 진상 책자를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집 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갔는데, 한 번 보십시오! 다음에 또 있으면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그 후 저는 기회를 이용해 파출소에 끊임없이 진상 자료를 가져다줬습니다.

또 정부 사무실에도 자주 가져다줬는데, 문 밑 틈으로 안으로 밀어 넣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 품속에서 진상 책자(명혜망 정기간행물)를 꺼내 책장에 꽂아 뒀고, 그러면 사무실 직원

수십 년 늘려줬습니다. 이후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수련을 시작한 후 이 일을 떠올리며, 사부님께서 그때부터 돌봐주셨고 지금껏 살아 대법을 수련하며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법제자는 더 이상 저승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대법 사부님의 관할에 속하며, 사부님께서 또 저승의 명부에서 대법제자들을 제명해 주셨습니다.

2. 다행히 대법을 얻어 새로운 삶을 얻다

1999년 봄, 갑자기 점점 기운이 없어지더니 걸을 수도 없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의사는 사구체 질환을 앓고 있으며, 혈색소 수치가 6g/dl로 심각한 빈혈 상태라고 했습니다. 20여 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만 별로 호전되지 않았고, 배는 부풀어 올랐으며 온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병은 치료하기 어렵고 완치도 쉽지 않습니다. 기공을 한 번 연마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영화관 앞에 있는 연공장을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공법인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연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연공장에 갔습니다. 연공하는 사람들을 따라 동작을 배우며 연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끝까지 연공했는데, 배가 부풀어 올라 화장실에 가야 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번이나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이 가벼웠고, 배도 더 이상 부풀지 않았으며 몸에 기운이 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밝아져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공법이 이렇게 대단할까?! 어떻게 단번에 나았지! 아직 동작도 다 못 외웠는데!' 자전거를 타고 영화관으로 가서 이것이 무슨 공법인지 물었습니다. 누군가 파룬궁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후 수련의 길에 들어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게 됐습니다. 몸에 있던 질병이 모두 사라져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2. 법공부를 이어나가며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리다

지난 20년간 매일 '전법륜(轉法輪)' 한 강을 통독한 이후 구절마다 단락마다 법을 외우고, 깨끗한 종이에 정성껏 옮겨 적어 지금까지 세 번 필사하고 네 번 암기했습니다. 사부님의 다른 설법도 순서대로 5번 공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제자 진상을 알리려고 입속의 예리한 검 일제히 뿜어내네 썩은 귀신의 거짓말을 폭로하나니 다그쳐 구도하고 빨리 알리세"(홍음 2-빨리 알려라). 저는 자주 외우고 생각하며 법으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2007년에 노동수용소 박해가 끝나 자유를 되찾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직접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자료와 대법 호신부(護身符), 진상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외지로 일하러 나가든 친척과 친구를 방문하든, 전염병 유행 기간이든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던 6년 동안에도 꿋꿋이 세 가지 일을 잘해냈습니다.

이후 현 소재지에 진상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자 외지로 나가 진상을 알렸습니다. 가끔은 수련생과 동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혼자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병원, 마트, 공원, 농촌 장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주로 찾았고, 특히 대형 시장과 인근 도시, 교외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날이 가장 더울 때는 물 두 병을 챙겨갔습니다. 반나절이나 하루씩 나갈 때면 버스를 갈아타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세상 사람들과 마주할 때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며 정성껏 알리자고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들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차가운 말을 듣더라도 최대한 평온하게 대처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천안문 분신자살'이라는 것을 알게 돼, 이 점은 반드시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출, 구이저우 장자석(藏字石: 중국공산당이 멸망한다고 기록된 고대의 예언석)과 전염병으로

4억 명이 넘게 사망한 사실 등 중공 악당의 텔레비전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내용도 상황에 따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전에 진상을 알릴 때는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고 평안을 지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전염병 발생 이후에는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당·단·대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주로 질문했는데, 이렇게 하니 접근이 한결 자연스러웠습니다. 자료를 건넬 때도 상대방의 교육 수준을 고려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는 사부님의 경문이나 진상 소책자를 주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상 화보나 진상 호신부를 주었습니다.

3. 감동으로 다가온 사람들의 반응

진상을 알리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에 자주 감동을 받곤 합니다.

한번은 진상을 이해한 아주머니 한 분이 사람 많은 장터에서 감격한 나머지 저를 4~5번이나 연속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빨리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대법 사부님께서 아주머니를 구해주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번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 가져간 진상 자료와 호신부를 모두 나눠준 상태였습니다. 저를 아주머니라 부르던 여성이 진상을 듣고 기뻐하며 자료를 달라고, 뭐든 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어느 부부가 상점에 들어가는 것을 수련생과 함께 보았는데, 아내는 위층으로 올라가고 남편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수련생에게 "저기 구원받길 기다리고 있네요! 가서 알립시다!"라고 했고, 그 분은 결국 진상 자료와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또 한번은 수련생이 80세 아주머니에게 진상을 알리고 먹을거리를 조금 드렸습니다. 이 따뜻한 아주머니는 기어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식

죽음을 두려워하던 데서 행운스럽게 대법제자가 되기까지

글/ 중국 동북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제자는 사존께 큰절을 올립니다!

올해 77세입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교류를 맞아 위대한 은사님께 수련 답안을 제출합니다.

1.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릴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면 선생님은 제게 앞에서 깃발을 들도록 배정하셨습니다. 매번 운동회 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두려웠고, 제발 그 전에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날이 되면 어머니께서 달걀을 몇 개 삶아 주셔서 운동회 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찍 죽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20세에 결혼해 임신했을 때는, 아이를 낳다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생각 때문에 실제로 몸도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고, 아이도 임신 7~8개월 만에 조산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려도 두려웠고, 너무 무서워서 향을 피우고 누군가에게 저를 보호해 달라고 빌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27세가 되던 해에 꿈을 꿨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저승에서 수명을 늘려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들고 수명을

제자를 선하게 대하며 스스로 미래를 선택한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반드시 어떻게 구해야만 한다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중생이 대법에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됩니다. 애당초 체포하고 판결을 내리던 것에서 훗날 5일 구류를 내리던 것으로, 그리고 지금 당일 석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더 많은 경찰이 대법제자에게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진상은 완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크게 각성하고 있고 남은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이는 곧 고비도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고비를 놓치면 제고할 기회도 놓치는 것이니 매번 고비를 넘길 때마다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당과 맞바꾸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당당한 대법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항상 자신을 일깨우고 채찍질하며 선하고 선하고 또 선해야 합니다. 오직 선(善)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상이 크게 드러나는 날, 분명 아쉬움은 남을 테니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아쉬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사부님 곁으로 돌아가 사부님께 보고드릴 때 "사부님, 제자는 천만다행으로 사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마디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입니다. 부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아쉬움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의 얕은 인식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허스(合十)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사를 대접하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 사람들의 선량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진상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진상을 알리다 보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마주치게 됩니다.

한번은 제 또래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두세 마디 건네자마자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더니 제게 침을 크게 뱉고 욕을 퍼부으며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다른 수련생과 함께 외지로 진상을 알리러 갔다가 40여 세 남성이 오토바이 앞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이 데리고 놀러 나오셨군요?"라고 묻자, 그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족들은 앞쪽으로 갔고요"라고 답했습니다.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얘기하는데 그가 "그만하세요, 더 말하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고, 그제야 저는 사복 경찰을 만났음을 눈치챘습니다.

한번은 어머니와 산책 중인 40여 세 남성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무척 선량해서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이해했지만, 진상 자료와 호신부를 건네려 할 때 어머니가 손으로 가로막으며 절대 못 받게 했습니다. 저는 정념을 발했고 마침내 그에게 진상 자료와 호신부를 건네주었습니다.

5. 87세 수련생과 손잡고 진상을 알리다

2026년에 사부님께서는 87세 여성 대법제자 한 분을 안배해 저와 함께 진상을 알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언니와 저는 거리가 꽤 멀었는데, 그분은 시내에 살았고 저는 현에 살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전화로 연락하지 않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언니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날이 아무리 추워도 제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고생을 잘 견뎠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무척 적극적이라서

언제 약속하든, 얼마나 먼 곳을 가든 흔쾌히 동행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최대한 '전법륜' 한 강을 통독했습니다. 오후 한나절 동안 보통 17~18명에게 삼퇴를 권했고, 많게는 20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법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상태가 좋지 않으면 7~8명이나 10명 남짓 삼퇴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언니는 명혜라디오의 교류 문장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하셔서, 저는 매주 다운로드한 새 내용을 가져다드렸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아주 순수하셨으며, 정진하시는 그 모습은 늘 제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이상은 저의 교류 내용입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기술 업무를 하며 심성을 높이고 서약을 실천하다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 무렵, 저는 명혜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컴퓨터가 외계인의 통제를 받는다고 여겨 컴퓨터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생이 보내준 명혜망 교류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글에서 수련생이 '대법이 필요로 한다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대법의 지고무상한 존엄을 수호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보고 무척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저도 이런 경지의 생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마치 공을 내세우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인즉 '보세요, 내가 그 파룬궁을 연공하는 할머니를 풀어줬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경찰들이 참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리면 직접적인 말단 박해를 막을 수 있다

예전에는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에게 늘 험한 말을 쏘아붙였으나, 점차 저는 그들이 진상을 들으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두 차례 대법제자를 석방한 선행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사건의 본질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젊은 경찰이 찾아온 것은 진상을 듣고 훗날 대법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으며,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법제자가 모두 아주 선량하다는 것과 이 박해가 좋은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리를 어기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기에 양심에서 우러나와 묵묵히 대법제자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리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기간에는 반드시 인내심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 마성을 억제할 수 있었고, 지금도 다소 남아 있어 억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경찰이 찾아와 교란하는 것은 비합법적이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 역시 그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 진상을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들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데, 지금은 제 발로 찾아왔으니 그들을 통해 진상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태도가 어떤지 볼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진실한 반영이야말로 핵심입니다. 더 이상 문을 닫아걸고 만나주지 않거나 밖으로 몰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리면 직접적인 말단 박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상을 명백히 듣고 대법

그가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당신들이 믿는 신이 벌을 주기도 한다며. 이를테면 ○○처럼 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온몸이 병투성이었지만, 수련한 후에는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훗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수련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으며, 사부님을 팔아넘기고 수련생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신을 기만한 것과 같으며 스스로 수련자의 신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수련하면 신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수련하지 않으면 신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겠죠. 그녀의 병이 다시 돌아간 것일 뿐이지 신께서 그녀를 벌준 것이 아닙니다. 신께서는 오직 사람만 구하시며, 신을 믿는 사람만 구하십니다.”

그가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몇 천년이나 됐는데, 당신들은 고작 몇 년밖에 안 됐잖아?” 파룬궁이 세상에 전해진 시간이 매우 짧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파룬궁이 27년간 박해를 받았지만 아무리 박해해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힘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를 적잖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제 월급을 끊었던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퇴직도 하기 전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한 교육국 간부 한 명은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결해 주지 않더니, 46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직접 관리하던 문교실 교장은 제게 서명을 강요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정직 처분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현세의 업보입니다.”

이 경찰은 자신도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들이 이번에 온 것은 제 사진을 찍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정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수련생들은 제가 진상 자료를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 진상 카드를 인쇄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카드가 아주 예뻐서 세상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자료점이 아주 적어서, 자전거를 타고 100여 리 길을 왕복하며 진상 자료를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무더워 특히 한낮에는 땀을 많이 흘렸고, 길에서는 물을 마실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더워 허벅지 안쪽 주변에 작은 뾰루지가 많이 돋기도 했습니다. 저는 줄곧 사존의 법을 외웠습니다. “신이 세상에서 법을 실증하고 있음이로다”(홍음 2-두려울 것 뭐냐). 계속 외우다 보니 덥지도 않았고, 다리도 불편하지 않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사존의 가지(加持) 덕분에 아무리 덥고 땀을 많이 흘려도 그다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사존께서 ‘북미순회설법’을 발표하시자, 저희는 그것을 입수한 뒤 즉시 수련생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한 농촌 수련생이 사는 곳은 큰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저와 Y 수련생은 그의 집에 도착해 사존의 설법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몹시 감격하며 수련생들과 만날 수 없어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았는데, 이제 사존의 설법도 볼 수 있고 명혜망 글도 볼 수 있게 돼 마침내 다시 집을 찾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잠시 이후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희는 서둘러 가자고 했습니다.

마을 밖 길로 나선 이후, 자전거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타이어 바깥쪽에 진흙이 잔뜩 묻어 틈새를 메우는 바람에 타이어가 구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막대기를 구해 진흙을 떼어냈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진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때 행인 한 명이 지나가며 “여기는 찰흙 땅이라 비가 오면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 자전거를 메고 가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같은 약한 여자 둘이, 이

시골 진흙길에서 비를 맞으며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자전거를 메고 가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존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고 계시며 하늘의 신께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괜찮을 것이며, 우리는 대법제자이므로 분명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법을 외웠습니다. 큰길까지는 5~6리 정도 떨어져 있었기에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저는 발밑을 제대로 보지 못해 순식간에 사람과 자전거가 한꺼번에 길옆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앉아 살펴보니 길에 가로놓인 도랑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땅에서 일어나 뒤에 있는 수련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련생은 자전거를 메고 "저도 당신을 챙길 겨를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전거를 메고 "저는 지금도 당신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법을 외우며 걸었고 마침내 큰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자주 각종 상황에 부딪혔지만, 그 어떤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존께서 새 설법이나 신경문을 발표하실 때마다, 저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수련생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접속을 담당하던 기술 수련생이 출국하여, 다른 지역의 기술 수련생을 찾아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저는 곧 인터넷에 접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약간 두려움이 있어 먼저 정념을 발하고 사존의 법을 외우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을 기다리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의 장애를 돌파해 더 많은 컴퓨터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데 필요하며, 그래야 제 능력을 더욱 충분히 발휘해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 편집, 그림 제작은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겠어요? 할머니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재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계신 것이니 그 경지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신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당일로 사람을 풀어주었으니 분명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큰 권한이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그분을 풀어준 것이니, 파출소 사람들은 모두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파출소 사람들은 다 백신을 안 맞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안 맞는다고 버텼는데, 안 맞으면 해고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맞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안 맞으면 해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백신을 만든 사람이 체포됐잖아요. 백신을 맞은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경찰들은 당신들 파룬궁 집에 가는 것만 생각하면 머리를 쥐어뜯어. 특히 A 아주머니네 말이야. 난 안 그렇던데. 내가 가본 이 몇 집 아주머니들은 다 사람이 참 좋았거든. 걔들은 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A 수련생의 남편은 법을 잘 알아서, 경찰이 어떠한 공식 증명이나 이유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위법이기에 그들은 명분이 없어 당연히 찔렸을 것입니다. A의 남편은 수련하지 않지만 이 경찰들을 절대 봐주지 않고, 녹화해서 곧바로 신고해 버립니다. 경찰은 일단 신고를 당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젊은 경찰은 제게 또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눠주던 자료에 적힌 내용, 너무 황당하지 않아? 암도 연공해서 다 나았다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다 읽어봤구나, 정말 잘됐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시간을 정해서 한가할 때 다시 오세요. 제가 암에 걸렸다가 연공해서 다 나은 사람 두 명을 부를 테니, 그분들에게 파룬궁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들어보세요."

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아직 할 말을 다 못 끝냈는데, 편지라도 한 통 써줄까?” 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파출소가 멀지 않으니 다 쓰시면 수위실에 두시면 됩니다.”

경찰이 집에 와서 공을 내세우다

며칠 전 그들이 또 왔는데, 이번에도 두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집에 있었고, 그 젊은 경찰의 태도가 다소 불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또 오셨어요? 제가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릴까 봐 두렵지도 않나요?” 젊은 경찰은 저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찍으시지. 하지만 인터넷에 올리면 당신한테도 안 좋을 텐데.” 저는 원래 쏘아붙이려 하다가 문득 제가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은 제 공간장에 두려움, 쟁투심, 악(惡)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쪽 말은 귀에 안 들어오니 내 말 좀 들어봐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엊그제 점심에 파출소에서 할머니 한 분을 잡아갔죠?” 제가 상세히 말하기도 전에 그는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맞아. 누가 신고를 했고 자료도 한 무더기나 챙겨 놔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출동한 거야. 사실 우린 그쪽으로는 순찰도 안 가거든.”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에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 여자 기록은 없어.” 그가 고개를 돌려 다른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기록 없지?” 이 말은 그들이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경찰이 말했습니다. “응, 없어.”

젊은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 하러 갔는지 알아? 자료 뿌리러 갔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 자료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나요? 그건 모두 사람들이 고난을 무사히 넘기도록 돕는 인명 구조의 묘약입니다. 지금의 천재지변과 인재(人災)를 보세요, 곳곳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이 뙤약볕을 뚫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랬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그랬

사기 쉽지만 우리가 쓰는 암호화 시스템을 설치할 줄 몰랐기에, 컴퓨터가 있어도 쓸 줄 몰라 기술 수련생을 찾아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시스템을 다룰 줄 아는 수련생이 더욱 적었기에, 저는 서약을 더욱 잘 실천하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컴퓨터 시스템 설치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결심을 한 이후, 사존께서는 제자를 위해 구체적인 안배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련생이 한 명 있었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 200여 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안개가 너무 짙어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됐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후, 수련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마중 나왔는데 30여 리를 더 가야 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앉아 자욱한 안개를 보며 ‘이걸 어떻게 타고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웠습니다. 이때 안개등을 켠 큰 차 한 대가 지나갔고, 저희는 그 큰 차를 따라 천천히 오토바이를 타고 수련생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스템 설치를 배울 때, 저는 단계마다 아주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돌아온 이후 필기한 내용을 따라 시스템 설치를 연습했지만 도무지 되지 않아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적어둔 것과 조금만 다른 상황에 부딪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수련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리자 다른 수련생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안개가 없었지만 바람이 유난히 셌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련생의 오토바이에 앉아 있었는데, 바람이 옆으로 불어 오토바이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고 언제라도 밭으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수련생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란 참 쉽지 않고, 교란도 이렇게 크며 구세력이 무척 심하게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면 사악의 인터넷 봉쇄는 해체될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의 보호에 감사드리고 수련생의 사심 없는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수련

생을 번거롭게 했지만 수련생은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고 언제나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 수련생들은 제게 시스템 설치를 부탁했고 저에게 시스템 설치를 배우려는 수련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수박 겉핥기로 배운 정도라 누군가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하거나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 마음이 두려워졌고, 모르는 부분은 수시로 기술 수련생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마다 바이오스 진입 키 설정이 달랐고, 때로는 시스템 CD나 USB를 꽂아도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컴퓨터의 키들을 하나씩 다 눌러보았고, 때로는 어떤 키인지도 모르는 새에 USB를 인식하여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문제에 부딪힐 때면 사존께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청했고, 많은 경우 갑자기 알게 돼 막혔던 곳이 뚫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시스템 설치 원리를 서서히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정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저는 종종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각종 신기술을 배우고 소모품을 샀습니다. 안전을 위해 저는 다른 지역 수련생을 찾아갈 때 기본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미리 사존께 향을 올리고 절을 한 뒤, 사존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 사존께 제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말씀드리며 제자를 가지해 주시기를 청했고, 제가 찾으려는 수련생이 꼭 집에서 저를 기다리도록 안배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한번은 전날 차를 예약해 아침 5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가 넘어 일어나 밖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몹시 춥다고 느껴, 문득 '사람들이 아직 단잠을 잘 때, 나는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물건을 사러 가야 하다니, 꼭 이런 날씨에 가야 할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쉴 줄도 모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정념은 즉시

못한 것도 없잖아."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실한 속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직 선념이 남아 있음에 감동했습니다.

파출소 경찰이 신고 전화 받기를 꺼리다

올봄 어느 날, 두 경찰이 또 왔습니다. 저는 당시 밥을 하던 중이라 남편을 큰 소리로 불러 그들을 촬영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경찰은 단번에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모님, 저한테 친이모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인데 제발 저를 찍지 마세요."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직접 덧붙였습니다. "작년 여름 방학 때 어떤 할머니가 학교 정문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중학생 몇 명한테 신고당했습니다. 파출소에 와서 우리가 물어봤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에, 저는 조서에 '묵비'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안국 구치소에서도 이런 일에 부딪히면 '묵비'라고 적는다고 들었기에 저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에게는 파출소 경찰과 사이가 좋은 친척이 있는데, 이후 친척을 통해 학생이 신고했던 그 사건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당시 파출소 경찰들은 아무도 신고 전화를 받지 않았고 출동도 안 했어. 그 중학생들이 공안국에 전화를 걸었고, 공안국에서 파출소로 전화를 하자 그제야 출동한 거야. 게다가 파출소에서 그 경찰은 부하들에게 절대 할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각별히 당부했지. 할머니를 5일 동안 가둬뒀다가 집으로 돌려보냈대."

그들은 올 때마다 40여 분씩 머물렀습니다. 한번은 제가 젊은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이 말을 끝내고 저 말도 하고 싶어서 누군가 그에게 전화를 걸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리를 떴

준비해 놓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후, 경찰 두 명이 왔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모두 있었는데 딸이 휴대폰을 들고 그들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열병식이 다 끝났는데 당신들은 왜 이제야 온 거예요? 또 우리 엄마를 촬영하려고요? 좋아요, 그럼 나도 당신들을 찍을게요.” 그들은 깜짝 놀라 “누님, 누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딸은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찍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얼빠진 모습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젊은 경찰이 갑자기 또 물었습니다. “누님, 저 찍으셨어요? 찍으셨다면 전 끝장입니다.” 딸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 불안하면 내가 휴대폰을 치울게요.” 그제야 그는 안심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기 싫은데 윗선에서 너무 다그쳐서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과 과일을 내오게 했습니다. 또한 저는 그들에게 ‘총구를 1cm 높여라’와 ‘눈 붉은 돌사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신문출판총서 제50호 령(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귀담아들었고, 젊은 경찰은 제게 현장(縣長) 접견일에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반영하라며 월급을 돌려받으라고 격려까지 했습니다. “위로 고소하세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아주머니 돈이니까 분명 돌려줄 겁니다.” 저는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다소 놀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공부 팀에 가서 한 수련생에게 경찰이 우리집에서 나간 뒤 그녀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배불러 터진 놈들이 우리한테 골칫거리를 안겨주는구만. 저 사람들 월급만 안 끊었어도 우리가 툭하면 남의 집에 찾아오겠어? 얼른 줘버리면 될 걸, 저 사람들이 잘

알려 주었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약속한 일이라면 어떤 날씨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저의 책임과 사명을 생각하고, 저는 즉시 사존께 향을 올리고 절을 하며 제가 하려는 일을 사존께 말씀드리고 제자를 가지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결연히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하늘은 뜻밖에도 햇살이 찬란하여 단번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사존의 자비로운 보호와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이후 수련생이 기술자를 데려와 주어, 저는 부분적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련생이 자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줄 아는 수련생도 데려와서, 그 수련생이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하는지 제게 알려 주었고, 저도 제가 아는 몇 가지 대량 생산 방법과 소프트웨어를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난 이후, 수련생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보니 바로 그곳에서 기계 수리를 할 줄 아는 기술 수련생이었습니다. 수련생은 제게 기본적인 수리 지식을 몇 가지 알려 주었고, 일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존의 자비로운 안배를 생생하게 느꼈고, 어떤 기술 수련생이 필요하면 바로 그런 기술 수련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배웠고, 마지막 날에는 그곳의 단체 법공부에 참여하여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후 수련생이 사이트 내 메일함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 주었고, 그 이후로는 한결 편해져 많은 일을 사이트 내 메일함으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6년 무렵부터 명혜망에 접속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주 정념을 발해 교란을 해체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기본적으로 접속하려 하면 즉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수련생을 찾아 그들에게 인터넷 접속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

니다. 저는 휴대폰을 기본적으로 쓰지 않고 많은 일을 메일함으로 연락합니다. 메일함에서 시간을 약속한 이후, 수련생들은 약속을 지켜 기본적으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수련생이 기술을 배우게 하고 싶어 기회가 닿는 대로 수련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이 과정에서 자주 각종 심성 고비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지만 기여하려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여하려 하지만 비교적 늦게 배웠습니다.

제게는 어떤 분야를 배울 때 먼저 전체 과정을 익숙하게 하고, 간단한 것을 명확히 이해하며 알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해한 뒤에, 정말 모르는 것만 수련생을 찾아 배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시간도 아끼고 수련생의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스스로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해 보면, 사존께서 일깨워 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우는 수련생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술 수련생을 찾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A를 가르칠 때, 그녀는 비교적 늦게 배웠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공책에 적게 하고 필기한 대로 조작한 뒤, 모르는 부분을 고친 다음 다시 적게 했습니다. 제가 제 이해대로 그녀를 가르칠 때, 그녀는 때로 멍한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몇 번이나 말해준 이후에도 그녀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저는 조금 조급해졌지만 조급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말투를 통제하지 못하고 '왜 똑같이 대법제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배우면 바로 알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가르쳐 주어도 모를까?'라고 생각하며 느리게 배우는 수련생을 약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안 돼, 수련생이 느리게 배운다고 못마땅해하면 안 돼. 나 자신도 그렇게 오지 않았는가? 과정이 필요한 법이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조급한 마음, 짜증 내는 마음, 쟁투심 등 사람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급해하는 이유는 사심이 남

앞으로의 수련의 길에서, 저는 정념정행하고 세 가지 일을 더욱 잘해 사부님을 따라 진정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경찰이 집에 올 때마다 반드시 진상을 듣게 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연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놓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구할 때 가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처럼 이런 업무 성격을 가진 생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선(善)과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진정으로 느끼고 진상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대법제자가 박해를 반대하고 사람을 구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경찰이 우리집에 올 때마다, 저는 그들이 헛걸음하게 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무언가 얻어 가게 한 뒤 돌아가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리면 직접적인 말단 박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들은 진상을 돌아가서 전파하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들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선념이 남아 있음에 감동하다

2025년 9월, 중공은 대규모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관례에 따라 현지 경찰이 일찌감치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포크타임스와 NTD TV의 뉴스 보도, 그리고 대법 진상 자료를 많이

아 그녀가 제 귀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은 제가 아니며, 저는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수련생은 모두를 위해 기여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니, 저는 반드시 그녀를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하며,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녀가 할 줄 알 때까지 해야 합니다.

A가 때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원망조로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하면, 저는 더욱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무보수로 가르쳐 주는 거라 감사의 인사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일 짜증 나는 건 내가 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르쳐 주고, 때로는 잠자는 시간까지 당신이 차지하는데, 당신은 그깟 작은 문제 하나도 배우지 못하면서 뒤에서 오히려 날 원망하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없나요?"

이후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안으로 찾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수련생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저는 여러 번 가르쳐 주었음에도 그녀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할 뿐, 제 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설명서가 있어도 보지 않고 제게 물어보길 기다렸으며, 세척액 설명서조차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보고 사용법을 알려주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병에 적힌 설명서를 들고 읽어주니 그녀는 그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A에게 "왜 먼저 생각해보지 않나요?"라고 묻자, 그녀는 "난 그냥 가르쳐 주기만 기다려요, 볼 줄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녀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았구나. 조금씩 배우게 하자. 그녀의 수용 능력에 맞춰 가르쳐야지,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그녀가 즉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면 잠시 멈췄다가 익힌 뒤에 다음을 가르치자. 나는 내 서약을 실천해야 하고 사존께서 내게 가르

가 구해주지 않아 원망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이웃에게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녀는 제가 파룬궁을 연마한다고 악의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당했고 20일간 갇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몸이 좋지 않았고, 며느리는 저를 구출하느라 사방으로 뛰어다녔으며 그녀는 적지 않은 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반대하지 않았고 제가 진상 알리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말하기 어려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그녀가 여전히 진상을 알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집 한쪽 벽이 갈라져 많은 돈을 들여 다시 고쳐야 했으나, 줄곧 적당한 시공팀을 찾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집이 저절로 복구됐고, 며느리는 아주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냉장고도 고장 나서 바꿔야 했는데 이것도 저절로 고쳐졌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전염병 기간, 같은 업종의 가게들은 불황이고 침체됐지만, 며느리의 커튼 가게는 장사가 잘돼 이전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12년 동안, 사람을 구하고 자신을 닦으며 수련생과 서로 촉진하고 끊임없이 제고했습니다. 고요해질 때면, 저는 자주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생에 자신이 대법을 얻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타인을 위하는 선량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옛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는 고상한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대법을 수련하면서 이러한 고상한 경지가 가져다주는 인생의 기쁨을 몸소 실천하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더욱 사부님의 위대함과 자비, 파룬따파의 위력을 느꼈고, 진선인이 인간 세상과 만사만물에 복을 내림을 느꼈습니다.

었고 힘도 커졌으며, 저는 제 몸이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부딪힌 것은 제가 아침 시장에 진상을 알리러 갔을 때였는데, 갑자기 차에 치여 기절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 일으키며 저에게 "어때요?"라고 묻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고정됐습니다. '나는 괜찮아!'

제가 정말 정신이 들었을 때 가해자는 사라지고 없었으며, 누가 저를 치었는지도 몰랐고 오직 저와 부서진 자전거만 남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후 제 다리를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고 몹시 부었지만 큰 지장은 없었고, 이는 사부님께서 제자를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신 것이며 저를 아는 사람들도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2. 며느리가 대법을 선하게 대하고 복을 받다

고부 관계는 가장 복잡하지만, 저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며 심성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나태해 집을 치우려 하지 않았고, 저는 한 번 가면 청소를 싹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마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큰소리를 치며 이것이 안 좋고 저것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으며 며느리와 다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법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저는 자신이 아직 대법의 기준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고 여전히 원망심,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마음,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버리며 여전히 평소처럼 줄곧 며느리를 선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으로 보며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았고 태도도 좋아졌으며, 제가 진상 알리는 것을 매우 지지했습니다.

저는 줄곧 얼굴을 마주하고 진상을 알리며 12년을 걸어왔는데 대체로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같은 마당 이웃에게 악의적으로 고발당했는데, 저는 그 이웃에게 진상을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이 깨닫기를, 어쩌면 이웃의 명백한 일면이 구원받기를 희망했는데 제

쳐 주신 이 위대한 일들을 잘 완수해야 한다.'

저는 안으로 찾은 이후 억울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번거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원망심, 보답을 바라는 마음,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마음 등을 제거했고 모든 더러운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A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 태도와 말투가 틀렸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A는 이미 인터넷 접속, 인쇄, 기본 편집, 컴퓨터 시스템 설치, 사이트 내 메일함 사용과 기본적인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할 줄 모르는 기계 수리 문제에 부딪히면 천지행(天地行)에 글을 올려 질문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소 중요한 일이 없으면 모두 먼저 법공부를 했고, 저는 몇몇 법 암기 팀에 참가하여 시간 날 때면 법을 외우고 법공부를 하며 안으로 찾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우리 지역의 기술 수련생 한 명에게 의지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기술이 제일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에게 상황이 생겨 기계를 수리할 수 없게 되자, 저희는 다른 지역 수련생을 모셔와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지역 기술 수련생은 스스로 구운 떡과 짠지를 잔뜩 가져와 저희가 신경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기술을 배우며 겪는 모르는 문제들을 아주 끈기 있게 설명해 주었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련생이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도 그는 자아를 내려놓고 아주 잘 협조했습니다. 수련생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방법대로 수련생에게 왜 그런지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기술 수련생의 행동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뭇 생명을 위하는 기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과 격차를 보았는데, 저는 때로 바빠지면 불평하려 했고 일

이 많아지면 말하는 말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 마음이고 모두 사심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는 한 걸음 더 깨달았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제가 만난 각종 상태는 사부님께서 제 사람 마음을 닦아 없애도록 이용하신 것이고, 저의 용량을 끊임없이 넓혀 사상 경지를 향상하도록 하신 것이며, 제가 서둘러 향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매번의 기회를 잘 파악하여, 매 순간 맑고 이성적으로 일사일념(一思一念)과 일언일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부님의 매번 자비로운 안배를 저버리지 않고, 진지하게 법을 중시하며 전체를 고려하여 매번 크고 작은 고비를 잘 넘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법 배우기

저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비교적 좋아 허영심, 체면 차리는 마음이 있었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남의 지적을 듣지 않으려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수련 전 가족들은 제게 "너는 푹 삶은 오리처럼 입만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 부딪히면 제 잘못이든 아니든, 저는 반드시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시 상황이 이랬고 저랬다며 각종 이유를 찾아 밖으로 책임을 미루려 했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 후 이 방면에서 저는 줄곧 그것을 제거해 왔습니다.

처음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족들이 모두 수련했기에 저를 아주 잘 대해주었고 저를 지적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그저 솔직하게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이 일이 제 잘못인데 어찌 늘 가족들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는 제가 틀린 것은 아닌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가족들은 즉시 저를 용서해 주었고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격려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성된 것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무슨 일에 부딪히면 때로 형성된 관념이 주도했습니다. 제가 막 책임을 떠넘기려 할

떤 수련생은 "돌려주면 은행 직원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고, 직원의 업무 실수라고 말하는 게 돼요"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돌려주었고 그 직원은 "고맙습니다. 제 돈으로 메웠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으며, 좋은 사람이 되니 정말 좋았습니다! 제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신 사부님 감사합니다.

저는 막 득법했을 때 돈을 자주 주웠고 제가 운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련생과 교류하며 이것이 저의 이익심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강풍이 돈을 모두 날려 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거의 보지 못했고 가끔 만나도 줍지 않았습니다.

대법의 신기함을 체득하다

1. 두 번의 교통사고, 선한 생각이 선한 결과를 낳다

한번은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저를 들이받아 쓰러뜨렸는데, 제 마음은 아주 발랐고 사부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 수련생은 心性(씬씽)이 아주 높아 다른 사람에게 번거로움을 줄 리가 없다." "기사가 차를 빨리 몰았지만, 그가 일부러 사람에게 부딪치려고 했겠는가? 그는 본의 아니게 한 게 아닌가?"(전법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차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자전거는 부서졌고 그녀는 기어이 300위안의 돈을 주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자전거는 폐차가 됐는데 타고 있던 70여 세 노인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으니, 제가 또 무슨 돈을 원하겠습니까! 대법은 정말 신기하고 위대하며, 저는 자신이 얻은 것에 기뻤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저는 자신의 심성이 높아졌음을 분명히 느꼈고 몸도 더 좋아졌습니다. 원래 저는 아주 말랐는데 나중에 체중이 60kg으로 늘

때, 수련생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하면 돼요. 설명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존의 설법을 외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누가 말해도 반드시 괜찮은 정도까지 해내야 한다.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비판과 지적에 직면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제고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시 법회 설법)

한번은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주 조급해하며 뒤에 걷고 있는 수련생에게 “좀 빨리 올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수련생은 아주 평온하게 “말투를 좀 바꿔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내가 어째서 법을 외울 줄만 알고 실제 수련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웃으며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존께서 수련생의 입을 빌려 제게 ‘말투를 바꾸라’고 일깨워 주신 것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이후 마음을 무척 심하게 자극하는 일에 부딪혔을 때, 저는 ‘홍음 3-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몇 번이고 외웠습니다.

제가 왜 스스로 틀렸는지 안 것은 바로 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며, 억울한 지적을 마주하여 저는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저의 제고를 도와준 수련생에게 감사해야 하며 이런 기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도 습관이 돼, 무슨 일에 부딪히면 제 잘못이든 아니든 우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이 곧바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상 지폐를 유통할 때 때로 돈 계산이 안 맞았는데, 저는 틀림없이 제가 잘못 셌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세어보면 맞았고, 이런 상황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저는 의존하는 마음도 없앴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혼자 살면서 무슨 일이든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주 사존께 제자를 도와주시기를 청했고, 수도꼭지를 갈거나 방충망 문을 다는 등 생활 속의

들어선 목적입니다. 걸어오며, 저는 스스로가 사존께서 깔아주신 길을 따라 평탄하게 나아갈 뿐 두려움이 거의 없었다고 느낍니다. 저는 만약 저희 마음이 순수하다면 저희는 더욱 힘이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상을 알리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몇천 명을 구했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80여 세의 낯선 수련생을 만났는데, 그는 정신이 맑고 기운이 넘쳤으며 자신이 이미 진상을 알려 3만여 명을 삼퇴시켰고, 10만여 명을 삼퇴시킨 수련생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자를 일깨워 주신 것이며, 수련에는 끝이 없고 저와 수련생 사이의 격차를 보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일깨우며 자만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다 – 인격의 자신감, 생명의 성취감

저는 늦게 득법했고 법공부도 적었으며, 처음부터 사람을 구했고 또 수련생들이 교류하는 것도 모두 진상을 알린 심득이었습니다. 저는 심성 면에서 제고하는 것이 매우 느렸고, 중점을 두고 닦지 못했으며 닦는 법도 몰라 조금씩 제고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가게에서 단기 일을 하며 일당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사장이 저에게 하루 치 임금을 더 계산해 주었고, 저는 ‘이건 상관없어. 주었으니 받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에게 이 일을 말하자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이 돈은 받으면 안 돼요. 작은 일도 사람의 심성을 시험할 수 있어요.” 저는 깨닫고 서둘러 돌려주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장에게 진상을 알린 적이 있었지만 그는 삼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돈을 돌려준 뒤, 다시 말하자 그는 삼퇴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며, 자신을 잘 닦아야 더 잘, 더 빨리, 더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고, 1만 위안을 찾았는데 100위안을 더 주어서 저는 즉시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의식했습니다. 어

많은 일을 천천히 배웠으며 점차 의존심을 버렸습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저는 스스로 향후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신을 더욱 순수하게 변화시켜야만 비로소 더 많은 중생을 구하고 제가 세상에 올 때 맺은 서약을 실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현 단계에서 인식한 것이며, 법에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득법할 때부터 대면해 진상을 알리다

글/ 중국 산둥 대법제자 샤오메이(曉梅)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9년 '7·20' 이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으며, 올해 76세입니다. 저는 명혜 라디오에서 수련생들의 교류 글을 자주 들으며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가끔 제 수련 체험을 글로 쓰고 싶었지만 능력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기간에 마침 원고 정리를 도와주는 수련생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서 주신 기회에 감사드리며, 12년간 수련하며 얻은 깨달음을 글로 써서 사존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사부님의 새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는 사람을 구하는 방주

사존의 자비로운 보살핌과 수련생들의 사심 없는 도움 속에서, 늦게 득법한 이 제자는 줄곧 평탄하게 사람을 구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2023년, 사부님께서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발표하셔서 저는 사람을 구하는 길에서 한 걸음 크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는 문을 전면적으로 열어주셨다고 느꼈고, 이 사람을 구하는 황금 열쇠를 받들고 길이 막힘없이 통했으며, 누구에게 주든 그 사람은 삼퇴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드러난 경문의 첫머리 부분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몇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뭇 신(神)·불(佛)이 나에게 신이 하고자 하는 말 몇마디를 세계중생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구구절절 천기(天機)인바,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하여, 다시 사람들에게 구도 받을 기회를 주려 한다."(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불이 사람을 구하러 오셨어요. 안에 천기가 아주 많으니 가져가서 잘 읽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다시 삼퇴를 권하면 상대가 아주 쉽게 탈퇴했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효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제자는 중생에 대한 사존의 무량한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희가 사람을 구할 시간, 중생이 구원받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느낌을 글로 쓴 것도 수련생 여러분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둘러 사람을 구하시기를 바라서이며, 사부님께서 이미 저희를 위해 장애를 치워주셨으니 저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가면 수확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저처럼 늦게 득법한 수련생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모두 사람을 구할 능력이 있고, 늦게 득법한 것은 사람을 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저희가 득법한 것은 바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이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가 대법에

심한 위궤양이 어느새 나았다

대법에 들어서기 전, 수련생이 저에게 진상을 알려준 적이 있었지만, 무신론에 너무 깊이 속았고,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조작해 선전한 것을 믿어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궤양이 있었습니다. 평소 돈을 몹시 아끼던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들여 치료하고 약을 사야 했지만, 병은 갈수록 심해져 몹시 괴로웠습니다.

같은 마당에 사는 동료가 듣고 저에게 권했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나랑 파룬궁을 배워요.” 이번에 저는 승낙했고, 법공부 장소에 가서 모두와 함께 법을 읽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아주 기계적으로 법공부를 했고 그저 사람들과 함께 읽기만 했으며, 많은 법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했던 위궤양이 어느새 나아 약을 먹으며 고생하지 않아도 됐고, 저는 아주 기뻤으며 대법의 신기함을 처음 보았습니다!

대면해 진상을 알리며 사존의 자비를 깨닫다

제가 득법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이가 아팠는데, 머릿속에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수련생들처럼 진상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그때 제 주변 수련생들은 서로 어떻게 진상을 알릴지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리는 내용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희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수련생들이 열심히 하는 일임은 알았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진상을 알렸는데, 마침 예전 동료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그는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몹시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음을 진심으로 느꼈으며, 사부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저는 아직 진상을 어떻게 알리는지도 모르는데, 몇 마디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크게 늘었고 그날부터 얼굴을 마주하고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릴 줄 몰라 수련생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래 수련한 수련생에게 몇 번 이끌어 달라고 한 뒤 혼자 나섰습니다. 제 수련 과정이 곧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을 하루같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제가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고, 비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태해져 쉬고 싶을 때마다 사부님의 법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으며,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다.”(각지 설법 13-2015년 뉴욕 법회 설법) 그러면 저는 기운을 내 계속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서 아침에 진상을 알리러 나갈 때는 빈속이고, 집에 돌아오면 직접 밥을 해야 하며, 움직이기 싫어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 대충 한술 떴습니다. 하지만 삼퇴로 구원받은 중생의 명단을 보면, 구원받은 중생 한 명마다 뒤에 무량한 중생이 있으니 제 피로와 고생이 중생의 희망과 미래를 떠받친 것이라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의 신성하고 막중한 책임을 체득했고, 사명감이 저절로 솟아나 스스로를 느슨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입원했을 때 간호하면서도 짬을 내 진상을 알렸고, 이미 하나의 기제(機制)가 형성됐습니다.

사부님께서도 늘 제자를 격려해 주십니다. 한번은 나갔다가 한나절이 넘도록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해 조금 낙담했고, 제 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잠시 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자를 격려하시려 보내주신 인연 있는 사람임을 알았으며, 제가 말을 건네자 그는 바로 탈퇴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